

▶ 내신 기출, 국어 천재 박영목-상편 ◀

1. 마음을 담은 언어

- (1)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9문제) -----1쪽
(2) 영훈이의 역사 누리방 (32문제)-----20쪽

2. 능동적 읽기와 주체적 해석

- (1)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 (40문제)-----39쪽
(2) 허생전 (51문제)-----63쪽
(3) 초신성의 후예 (32문제)-----103쪽

3. 우리말 바로 쓰기

- (1) 올바른 발음과 표기 (64문제)-----122쪽
(2)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65문제)-----145쪽
(3)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이란 무엇인가 (11문제)-----168쪽

4. 문학의 갈래와 구조

- (1) 향수 (50문제)-----177쪽
(2) 종탑 아래에서 (58문제)-----199쪽
(3) 두근두근 내 인생 (41문제)-----237쪽
(4) 수오재기 (43문제)-----264쪽

◆빠른 전체 정답 -----286쪽

◆해설 -----289쪽

교재 버전: 2021.0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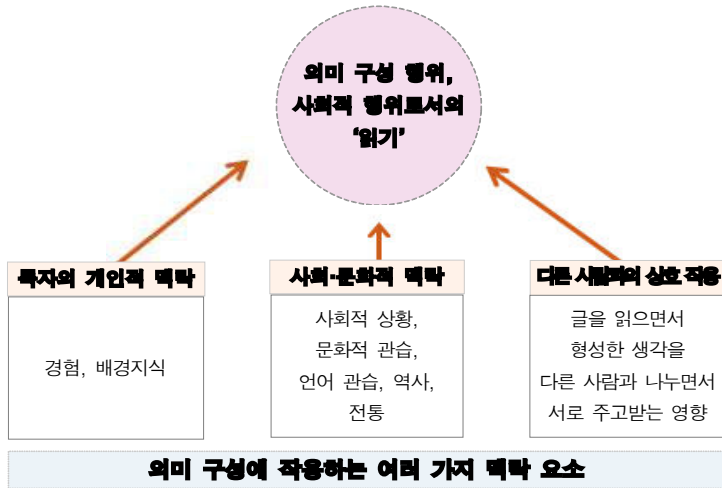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 필적 정리

Ⅲ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읽기’

- ① 개념: 글 읽기는 글쓴이와 독자는 물론, 글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상황, 관습, 전통, 역사 등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소통을 하면서 함께 의미를 구성하는 사회적 대화이자 사회적 상호 작용의 행위임.



- ② 특징: 상호 작용의 주체와 맥락에 따라 글의 의미는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음.

Ⅳ 재제 정리

갈래	수필	성격	비평적, 서사적, 체험적
제제	등나무 운동장(무주 공설 운동장)		
주제	감응을 통해 만들어진 ‘등나무 운동장’		
특징	① 등나무를 활용하여 공설 운동장에 그늘지붕을 만든 과정과 완공 이후에 생겨난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술함. ② 등나무 운동장을 만든 경험을 구체적 사례로 삼아 글쓴이의 건축관을 보여 줌.		

■ 등나무 운동장의 조성 과정

군수의 제안	주민들을 위해 공설 운동장 관중석에 등나무 그늘을 만들자고 함.
↓	
글쓴이의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나무가 구조물을 자연스럽게 타고 오를 수 있게 함. • 구조물의 형태를 등나무의 구조와 닮게 함. • 관중의 시선과 햇볕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조물의 높이와 각도를 정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5px;"> 글쓴이의 건축관 ①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는 건축 } ‘바람직한 건축’ ② 건축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건축 </div>
↓	
공설 운동장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등나무 운동장으로 변화함. • 주민들의 외면을 받던 장소에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로 변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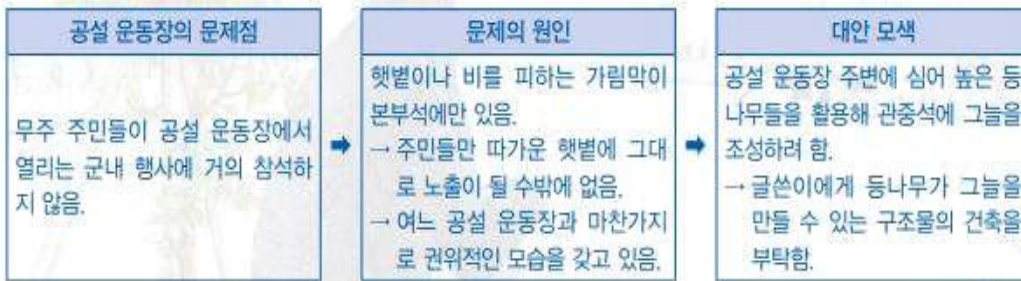
■ 등나무 운동장 조성 과정에서 일어난 '감동'

감동	감동의 결과
군수가 주민들에게서 얻은 감동 (사람-사람 간의 감동)	주민들을 위해 운동장 관중석에 그늘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움.
글쓴이가 등나무에서 얻은 감동 (사람-자연 간의 감동)	식물을 덮개 설계하여 등나무가 편안하게 타고 오를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
철골 구조물과 등나무 사이의 감동 (건축물-자연 간의 감동)	등나무의 성장하려는 힘과 그것을 떠받치는 철골 구조물의 힘이 서로 조화를 이룸.

■ 건축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모더니즘 건축	바람직한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을 조경이라는 부수적인 측면에서 인공적으로 다룸. • 공간을 만드는 일을 중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과 자연은 필연적 관계임. • 변화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함.

■ 공설 운동장에 대한 군수의 생각



■ 글쓴이가 설계하면서 중점을 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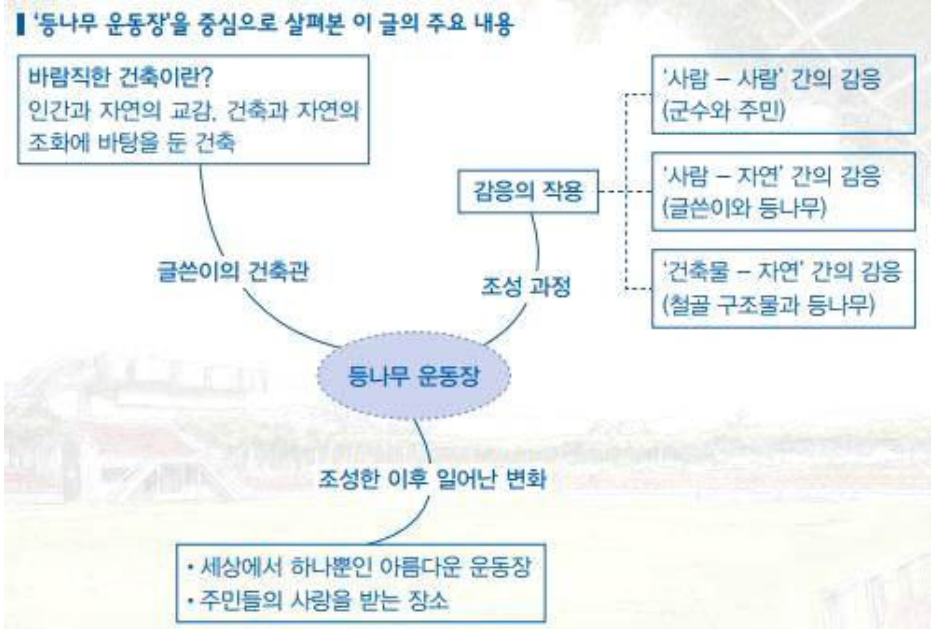


■ 자연, 인간을 배려한 구조물의 설계

등나무를 덮음.	등나무 가지가 자라는 모양을 본따서 여러 개의 작은 원형 파이프를 묶어 큰 줄기처럼 만들.
등나무를 배려함.	등나무 줄기가 타고 오르기 쉽도록 원호(圓弧) 모양의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식물을 엮음.
관객들을 배려함.	관중의 시선과 관중이 받을 햇볕을 고려해 원호의 꼭짓점의 높이를 적절히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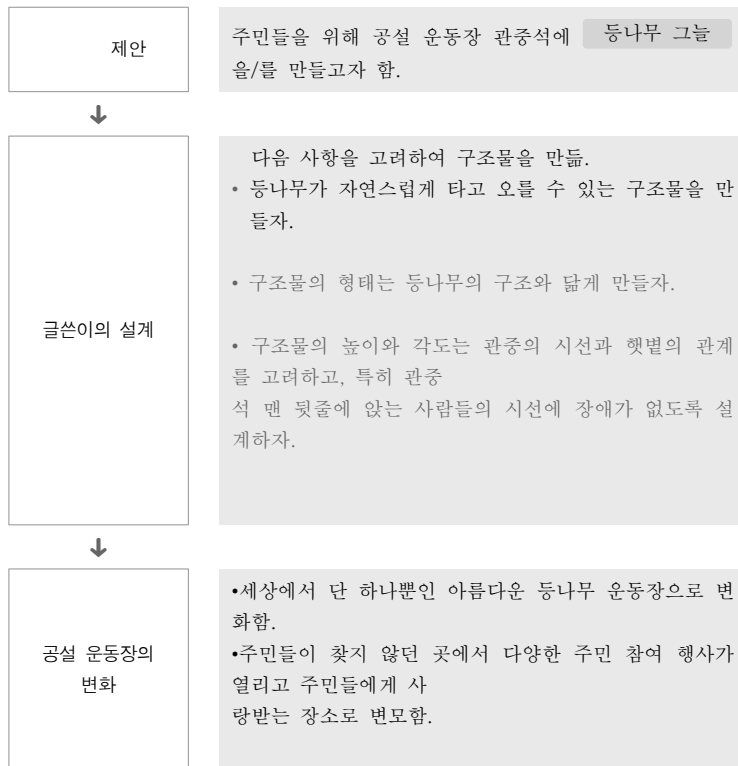
■ '등나무 운동장'으로부터 얻은 깨달음

바람직한 건축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을 만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간'을 다루어야 함. • 지금까지 놓쳐 온 '자연'과 '인간' 사이의 '교감'과 '감성'을 요구함. • '자연'과 필연적 관계라는 것 알고 자연을 제대로 대접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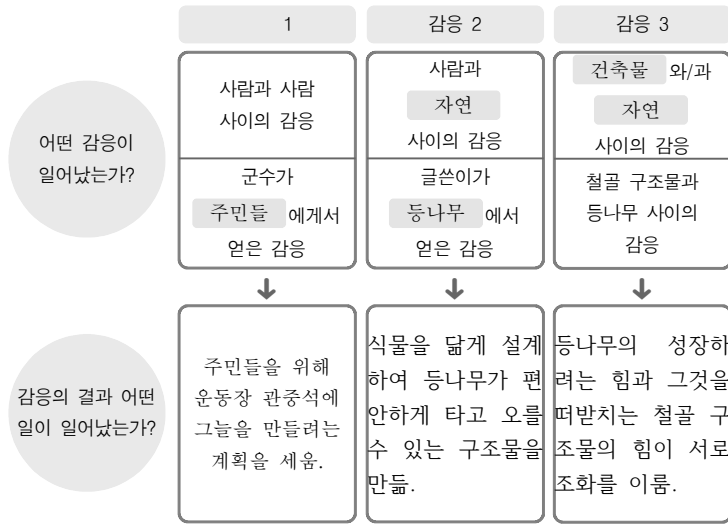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 그래픽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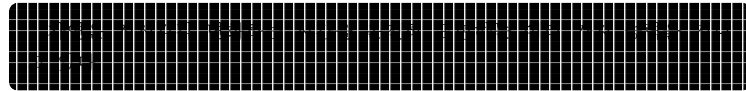
1. ‘등나무 운동장’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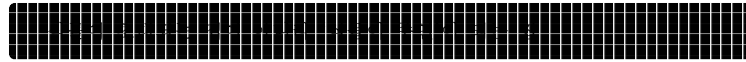
2. ‘등나무 운동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다양한 ‘감응’을 정리에 보자.



3. 다음 구절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말해 보자.



→ 자연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겨우내 꽁꽁 얼었던 냇물이 봄이 되면 사르르 녹는 것이나, 일 년이 지나고 난 뒤 나무에 나이트가 하나 더 생기는 것들을 보면 ‘자연은 변화하는 시간을 표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글쓴이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 처음 보았을 때 건물 자체가 아니라 건물을 둘러싼 풀이나 나무가 먼저 눈에 띄는 건축물이 ‘식물이 주인’이 되는 집이라고 생각한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서울 대학로에 있는 옛 샘터 사옥(현 ‘공공 그라운드’ 사옥)을 떠올렸다. 여름에 거기가 보면 건물보다 벽을 수놓은 담쟁이가 먼저 보이기 때문이다.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 읽기 문제

1. 건축이 ‘시간을 다루는 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 건축이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건축은 ‘자연’이라는 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건축과 자연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다. 따라서 건축물을 조성할 때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에 축적된 것과 미래에 일어날 변화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공설 운동장에서 군내 행사를 치를 때 주민들이 거의 오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인가?

→ 따가운 햇볕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가림막이 중앙 분부석에만 있고 관중석에는 없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했기 때문이다.

3. 글쓴이가 ‘감응’이라는 단어를 쓴 까닭은 무엇일까? ‘감응’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을 쓸 수 있을까?

→ ‘감응(感應)’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느낌을 받아 마음이 따라 움직임’이다. 이 글의 문맥에서는 ‘상호 작용’, ‘공감’, ‘교감’ 등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

4. 공사가 마무리된 뒤 등나무 운동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 과거와 달리 공설 운동장이 주민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었다. 조명 시설을 갖추어 조명에 비치는 등나무의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대형 화면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높였다. 영화를 감상하는 등 주민들이 함께하는 행사도 치르게 되었다.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 구원 필사

1

처음 | 51 5~7행

공설 운동장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등나무 운동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등나무 운동장을 만든 일은 내가 무주에서 10여 년 동안 한 일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감동적이며 나를 많이 가르친 프로젝트이다.

↳ 건축가 정기용은 무주군의 요청을 받아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지역 공공 건축물 30여 개를 설계하고 조성한 바 있는데 이 사업을 일컬어 ‘무주 공공 프로젝트’라고 한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서 주민 자치 센터, 마을 회관, 납골당, 박물관 등 여러 건축물을 설계했는데, 이 글의 ‘등나무 운동장’도 무주 공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완성된 것이다. 해당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글쓴이는 무주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한 여러 공공 건축물들 가운데 ‘등나무 운동장’에 특별한 애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2

51쪽 12~14행

현대 건축은 자연을 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고 ‘조경’이라고 하는 부수적인 측면에서 인공적으로 다루려고 했다.

↳ 현대 건축이 자연을 건축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지 않고, 단순히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는 장식 정도로 취급해 온 점을 지적하고 있다.

3

51쪽 17~18행

그리고 자연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간을 온전히 표현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지니고 있다. 자연은 그 자체가 변화이자 축적이며 지속이고 자라나는 것이다.

↳ 자연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지나간 시간은 언제나 그 흔적을 자연에 남기며, 그러한 흔적이 쌓여 자연의 현재 모습을 이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즉 자연은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4

52쪽 3~5행

여기에서 건축은 등나무의 푸른 풍경이 펼쳐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반복되는 단순한 경량 철골로 구축된 구조물은 그 자체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등나무가 자라려는 의지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게 지지하고 돕는다.

↳ 글쓴이가 설계한 철제 구조물은 자연을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하며 자연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힘이 펼쳐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즉 등나무 운동장에서의 건축은 등나무의 자연스러운 생장을 도우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었으며, 글쓴이는 이것을 건축의 바람직한 사례로 여기고 있다.

5

중간 | 52쪽 26행 ~ 53쪽 2행

군수는 모든 공설 운동장에 있는 이 권위주의의 실상을 파악하고 ~ 그는 등나무를 심어서 관 조석에 자연스러운 그늘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다.

↳ 군수가 주민들의 이야기에 감응(感應)하여 등나무 운동장을 만들고자 결심하였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군수는 공설 운동장의 불편함에 대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공설 운동장’이라는 의미에 맞는 장소가 되도록 개선하고자 마음먹은 것이다.

6

53쪽 5~10행

나는 그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놀라웠고, 허공에서 허우적대는 등나무의 순을 보고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 ‘그러면 너희는 근사한 그늘을 만들어 나오.’

↳ 글쓴이가 등나무에 감응(感應)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글쓴이는 등나무 순을 보고 감동을 느꼈으며, 마치 살아 움직이는 존재와 교감하듯 등나무에게 집을 지어 주겠다고 생각하였다.

7

53쪽 11~13행

다른 하나는 어떠한 구조물이든지 식물이 초대되는 집이 아니라 ‘식물이 주인’이 되는 집이 되게끔 배려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였다.

↳ 인공적인 건축 구조물이 주가 되고 식물은 부수적인 요소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주가 되고 인공적인 건축 구조물은 그

2-(1)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 [이론편]

마음껏 자라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글쓴이의 생각이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8 53 10행 ~ 54쪽 16행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스케치를 하고 설계에 들어갔다. ~ 상세한 내용을 모두 정하고 물량까지 계산하는 데 걸린 시간은 서너 시간 정도였는데, 나는 거의 무아지경*에 빠져 즐겁게 집중할 수 있었다.

↳ '식물을 닮게 설계'한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한 부분이다. 글쓴이의 설계 내용은 실제 그의 스케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54쪽 13~14행

나는 최소의 것으로 최대의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 등나무라는 자연환경적 요소를 잘 살린다면, 인위적인 건축 구조물을 최소로 사용하고 비용을 절약해도 매우 훌륭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글쓴이의 신념이 드러나 있다.

10 54쪽 18~19행

하나는 군수가 주민들에게서 얻은 감응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허공을 허우적대는 등나무 순에서 얻은 감응이다.

↳ 주민들의 말에 공감하여 운동장 관중석에 그늘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군수가 얻은 감응이다. 그리고 지지대가 없어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는 등나무 줄기를 보고, 줄기가 감고 올라갈 구조물을 만들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글쓴이가 얻은 감응이다.

11 54쪽 22~23행

허공을 허우적대는 등나무가 관중석 쪽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생생하다.

↳ 글쓴이는 자신과 등나무의 교감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등나무를 의인화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글에는 이와 같이 등나무를 의인화한 표현이 여러 차례 쓰였는데, 여기에는 자연을 존중하는 글쓴이의 태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12 끝 | 55쪽 1~4행

공설 운동장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관중석 상부에 철골 구조물을 만드는 공사가 완공되고 1년이 지나면서 등나무 운동장은 서서히 무주 주민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었다. 등나무는 마치 집들이를 하듯 마음껏 잔치를 벌였고 그 잔치에 주민들을 초대했다.

↳ 등나무 구조물을 만든 이후 공설 운동장의 변화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등나무 운동장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었고 점점 더 풍성하고 화려한 경관을 만들어 냈다. 글쓴이는 이와 같은 변화를 마치 등나무가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13 56쪽 7~8행

등나무의 성장하려는 힘과 그것을 떠받치는 철골의 힘은 마치 상대방의 힘을 알아차린다는 듯 서로 감응하고 있다.

↳ 등나무(자연)와 철골 구조물(건축) 사이의 감응을 표현한 대목이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과 인공 구조물이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무주에는 공설 운동장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등나무 운동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등나무 운동장을 만든 일은 내가 무주에서 10여 년 동안 한 일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감동적이며 필자를 많이 가르치기도 한 프로젝트다. 한마디로 말해, 모더니즘 건축이 놓친 자연과 인간의 ‘교감’과 ‘감성’을 내게 일깨워 준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은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간을 다루는 일이라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한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더니즘 건축에서 우리가 놓쳤다고 하는 자연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그 시작에서부터 건축은 자연과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현대 건축은 자연을 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고 ‘조경’이라고 하는 부수적인 측면에서 인공적으로 다루려고 했다. ㉢즉,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건축이 마치 자연 위에 균립하는 듯했다. 우리가 건축에서 자연에 관해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모든 건축이 - 설사 도심에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 ‘자연’이라는 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연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간을 온전히 표현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지니고 있다. 자연은 그 자체가 변화이자 축적이며 지속적이고 자라나는 것이다.

(나) 그러면 무주 ㉣공설 운동장이 ㉤등나무 운동장으로 변신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과연 공설 운동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1997년 어느 날, 나는 무주에 회의를 하러 갔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을 먹던 중 갑자기 무주 군수가 “식사를 마치고 우리 같이 공설 운동장에 갑시다.”라고 제안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따라나선 나는 “거기 무슨 일이 있는지요?”라고 물었으나 그는 그냥 가 보면 안다는 식으로 가볍게 대답했다. 그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따라가 본 운동장은 별다른 특색을 찾을 수 없이 평범했다.

지방 소도시의 조그만 공설 운동장이란 평소에는 한적하고 가끔 행사가 있을 때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다만, 무주의 공설 운동장은 초록 잔디를 정성스럽게 키워 넓게 펼쳐 놓은 것과 주변의 자연 경관이 빼어나다는 점이 특별해 보였다. 그때 군수는 “보여 줄 게 있다.”라며 그간의 고민을 털어 놓았다. 그는 공설 운동장에서 군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을 초대하는데 주민들은 거의 오지 않고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설 운동장에서 행사가 있을 때 왜 참석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어느 어른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여보게 군수, 우리가 미쳤나! 군수만 본부석에서 햇볕을 피해 앉아 있고 우리는 땀병에 서 있으라고 하는 게 대체 무슨 경우인가. 우리가 무슨 별반을 일 있나? 우린 안 가네.”

아닌 게 아니라 햇볕이나 비를 피하는 가림막은 중앙 본부석에만 있고, 운동장 주변의 관중석은 가까운 햇볕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느 운동장이든 본부석은 일반 관중석보다 늘 거대하고 압도적이어서 권위와 중심을 상징하는 장소처럼 느껴진다.

군수는 모든 공설운동장에 있는 이 권위주의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기꺼이 다른 모습으로 바꾸고자 남몰래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가 운동장에서 나에게 보여주겠다고 한 것은 바로 그가 운동장 주변에 심어놓은 240여 그루의 등나무였다. 그는 등나무를 심어서 관중석에 자연스러운 그늘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다.

(다) 나는 대답했다. ‘그래 등나무들아, 내가 너희한테 집을 지어 주마. 그러면 너희는 근사한 그늘을 만들어 나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어떠한 구조물이든지 식물이 초대되는 집이 아니라 ‘식물이 주인’이 되는 집이 되게끔 배려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즉, 완공된 후 구조가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등나무들이 마음껏 자라나서 마치 구조물의 주인이 된 것처럼 보여 주고 싶었다. 이 두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방법은 식물을 닦게 설계하는 것이었다.

나는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스케치를 하고 설계에 들어갔다. ㉥첫째도 둘째도 모두 식물과 같이 만들고자 했다. 등나무는 여러 줄기가 모여서 타고 오르는 식물이니 작은 것들이 합쳐지는 구조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래서 지름 6센티미터짜리 원형 파이프 네 개를 한 다발로 묶어 큰 줄기가 되게 하고, 그 원형 파이프를 때로는 두 개, 때로는 세 개를 결합해 작은 줄기가 되게 하여 등나무가 편안하게 타고 오를 수 있도록 가벼운 원호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었다.

즉, 구조 자체를 등나무의 구조와 닮게 하려고 원형 파이프를 여러 개 결합하였고, 등나무가 관중석 방향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윗부분의 구조를 원호 형태로 만들었다. 시선과 햇볕의 관계를 고려해 가장 적절한 위치에 원호의 꼭짓점을 정했다. 특히 관중석 제일 뒷줄에 앉는 사람들의 시선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은 원호의 꼭짓점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또 등나무가 자라면 원호 형태의 파이프가 휘어질 것을 고려하여, 기둥의 위쪽에서 원호 형태의 파이프를 당기며 잡아 주도록 설계했다. 그리고 등나무가 구조물을 쉽게 타고 올라가도록 가는 쇠줄로 엮어 주었다.

구조물의 단면을 그리면서 모든 것은 명확해졌다. ㉦나는 최소의 것으로 최대의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상세한 내용을 모두 정하고 물량까지 계산하는 데 걸린 시간은 서너 시간 정도였는데, 나는 거의 무아지경에 빠져 즐겁게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을 그렇게 순식간에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감응이 겹으로 작동해서가 아닌가 싶다. 하나는 군수가 주민들에게서 얻은 감응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허공을 허우적대는 등나무 숲에서 얻은 감응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고, 사람과 식물이 서로 감응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비로소 등나무 운동장이 태어난 것이다.

(라) 공설 운동장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관중석 상부에 철골 구조물을 만드는 공사가 완공되고 1년이 지나면서 등나무 운동장은 서서히 무주 주민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었다.

등나무는 마치 집들이를 하듯 마음껏 잔치를 벌였고 그 잔치에 주민들을 초대했다. 관중석 바닥에는 조명도 설치되어 밤이 되면 등나무들이 은은하게 변신을 한다. 그리고 본부석의 콘크리트 지붕을 부드러운 막 구조물로 바꾸었고, 거기에 대형 화면을 설치했다.

매년 꽃이 피는 봄이 오면 등나무 운동장은 환상적으로 변한다. 언젠가 주민들은 이 운동장에서 영화도 감상했다. 그리고 행사나 경기가 없을 때 여기저기서 온 방문객들은 등나무 운동장의 커다란 규모와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어 감동한다.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자연의 힘이 크게 작동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제된 건축의 힘도 작용했다. 운동장의 등나무는 철구조와 서로 만나서 또 다른 구조체를 만들어 냈다. 등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라려는 힘과 의지를 철구조가 떠받쳐 주고 있다. 등나무의 성장하려는 힘과 그것을 떠받치는 철골의 힘은 마치 상대편의 힘을 알아차린다는 듯 서로 감응하고 있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에게 관중석 제일 뒷줄에 올라서서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걷기를 권유한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도심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자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자연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스스로 늘 그러한 풍경을 보여 줄 것이고, 내년에도 그러할 것이다. / 서울에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무주에는 등나무 운동장이 있다.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등나무 운동장이.

-정기용, <등나무 이야기>

명일여자고등학교 (서울)

1.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건축과 모더니즘 건축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글쓴이의 건축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이어질 내용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 ③ 등나무 운동장을 건설하는 과정과 완공 이후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였다.
- ④ 등나무 운동장을 만든 경험을 구체적인 사례로 삼아 글쓴이의 건축관을 보여주고 있다.
- ⑤ 대화 장면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서술 양상에 변화를 주고 있다.

명일여자고등학교 (서울)

2. 뒷글을 읽는 과정에서 ㉠~㉢과 관련하여 독자가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지녔다는 것이니까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변화가 있었다고 예측할 수 있겠군.
- ② ㉡ - 일반적으로 공간이라는 요소와 관련되는 건축을 '시간을 다루는 일'이라고 한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나아가는 건축물의 속성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군.

- ③ ㉢ - 모더니즘 건축이 기능성이나 실용성에 치우쳐 건축물과 필연적인 관계인 자연이라는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부수적인 요소로만 취급하려 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 - 완공 후 구조물이 주인 행세를 하게 하기보다는 등나무가 구조물의 주인인 것처럼 드러나게 하기 위해 내린 결론이라고 할 수 있군.
- ⑤ ㉤ - 식물을 닮게 설계를 함으로써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군수의 고민도 해결하고, 등나무가 잘 드러나면서도 관중들을 배려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어.

명일여자고등학교 (서울)

3. 글의 주제 의식을 고려할 때,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주인이 주인이 되는 건물이라면 ㉡는 식물이 주인이 되는 건물이다.
- ② ㉠은 자연이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건축물이라면 ㉡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이다.
- ③ ㉠이 군수가 문제시하는 건축물이라면 ㉡는 주민들이 문제시하는 건축물이다.
- ④ ㉠은 화려하고 장엄한 건축물이라면 ㉡는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 ⑤ ㉠에는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건축물이라면, ㉡는 실용주의적인 요소가 중시된 건축물이다.

명일여자고등학교 (서울)

4. <보기>를 읽고 (1), (2)번의 물음에 대한 답을 쓰시오.

<보기>

등나무 운동장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세 개의 감응이 작용하였다. 사람과 사람의 감응, ㉠사람과 자연의 감응, (㉡)이다.

(1) ㉠의 구체적인 의미를 쓰시오.('누가 무엇에서 받은 감응'이라는 형태로 쓸 것)

(2)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모더니즘 건축에서 우리가 놓쳤다고 하는 자연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그 시작에서부터 건축은 자연과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현대 건축은 자연을 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고 '조경'이라고 하는 부수적인 측면에서 인공적으로 다루려고 했다. 즉,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건축이 마치 자연 위에 군림하는 듯했다. 우리가 건축에서 자연에 관해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모든 건축이 - 설사 도심에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 '자연'이라는 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연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간을 온전히 표현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지니고 있다. 자연은 그 자체가 변화이자 축적이며 지속이고 자라나는 것이다.

(나) 햇볕이나 비를 피하는 가림막은 중앙 본부석에만 있고, 운동장 주변의 관중석은 가까운 햇볕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느 운동장이든 본부석은 일반 관중석보다 늘 거대하고 압도적이어서 권위와 중심을 상징하는 장소처럼 느껴진다. 군수는 모든 공설운동장에 있는 이 권위주의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기꺼이 다른 모습으로 바꾸고자 남몰래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가 운동장에서 나에게 보여주겠다고 한 것은 바로 그가 운동장 주변에 심어놓은 240여 그루의 등나무였다. 그는 등나무를 심어서 관중석에 자연스러운 그늘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다.

(다) 나는 그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놀라웠고, 허공에서 허우적대는 등나무의 순을 보고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는 수백 그루의 등나무 줄기는 마치 살려 달라고 애절하게 호소하는 것 같았다. 나는 대답했다. '그래 등나무들이야, 내가 너희한테 집을 지어 주마. 그러면 너희는 근사한 그늘을 만들어 다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어떠한 구조물이든지 식물이 초대되는 집이 아니라 '식물이 주인'이 되는 집이 되게끔 배려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즉, 완공된 후 구조가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등나무들이 마음껏 자라나서 마치 구조물의 주인이 된 것처럼 보여 주고 싶었다. 이 두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방법은 식물을 닮게 설계하는 것이었다.

(라) 이런 일을 그렇게 순식간에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감응이 겹으로 작동해서가 아닌가 싶다. 하나는 군수가 주민들에게서 얻은 감응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허공을 허우적대는 등나무 순에서 얻은 감응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고, 사람과 식물이 서로 감응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비로소 등나무 운동장이 태어난 것이다. 허공을 허우적대는 등나무가 관중석 쪽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생생하다. 나무가 몸을 뻗어 세상을 향해 자라나는 것을 보는 일은 언제나 행복하다.

(마) 방문객들은 등나무 운동장의 커다란 규모와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어 감동한다.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자연의 힘이

크게 작동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제된 건축의 힘도 작용했다. 운동장의 등나무는 철 구조와 서로 만나서 또 다른 구조체를 만들어 냈다. 등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라려는 힘과 의지를 철 구조가 떠받쳐 주고 있다. 등나무의 성장하려는 힘과 그것을 떠받치는 철골의 힘은 마치 상대편의 힘을 알아차린다는 듯 서로 감응하고 있다.

성남외국어고등학교 (경기)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가치관을 드러낸다.
- ② 형상화된 삶을 현재화하여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생동감을 준다.
- ③ 자기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주제를 제시하여 독자들의 심미적 체험을 최대화한다.
- ④ 글쓴이의 글의 중심 소재에 대해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관조적으로 바라본다.
- ⑤ 문학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글이므로 비유적 표현을 지양하고 정보를 충실히 표현한다.

성남외국어고등학교 (경기)

6. (가) ~ (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 현대 건축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 ② (나) : 대상에 대한 통념을 제시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 ③ (다) : 글쓴이가 생각한 설계의 중요한 요소를 드러냈다.
- ④ (라) : 건축물과 자연 사이의 감응에 대해 표현했다.
- ⑤ (마) : 설계에 있어 자연을 건축의 우위에 두어야 함을 강조했다.

성남외국어고등학교 (경기)

7. 윗글을 읽고 학생들이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 ② 모더니즘 건축과 현대 건축은 자연을 부수적인 것으로 파악했구나.
- ③ 자연은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 ④ 글쓴이는 주민들과 등나무 양측에 모두 감응했기 때문에 훌륭한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었어.
- ⑤ 군수가 운동장에 심어놓은 등나무는 건축물과 만났기에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

“집현전” 문석 정리

㉑ 문학 작품의 해석과 평가

- ① 해석과 평가의 다양성: 독자의 경험과 지식, 가치관, 독서 목적 등에 따라 작품을 읽는 관점이 달라짐.
→ 독자의 관점에 따라 작품이 다양하게 해석·평가됨.
- ② 해석과 평가의 타당성: 해석과 평가가 타당성을 지니려면 적절한 근거를 갖추어야 함.

㉒ 문학 작품의 ‘주제적 수용’의 의미

다른 사람의 해석이나 평가를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않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함.



**작품에서 풍부한 의미를 이끌어 낼 수 있고,
비평적 안목을 기쁨으로써 문학 작품을 능동적으로 향유할 수 있음.**

㉓ 제제 정리

갈래	고전 소설, 한문 단편 소설	성격	비판적, 풍자적
사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조선 효종 때(17세기 중반) • 공간: 국내(서울, 안성, 제주, 변산반도 등), 국외(빈섬, 장기도) 		
제제	‘허생’이라는 선비의 비범한 재주와 기이(奇異)한 행적		
주제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 비판, 새로운 삶의 각성과 실천 촉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범한 식견과 능력을 지닌 ‘허생’이라는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됨. ②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당대 조선 사회의 폐단을 비판함. ③ ‘빈 섬’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 이상향을 모습을 그려 보임. 		

■ <허생전>의 구성

발단	책 읽기만 즐겨 하던 가난한 선비 허생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아내의 질책을 듣고 집을 나섬.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자 변 씨에게 빌린 만 냥으로 과일과 말총을 사재기하여 큰돈을 벌. ② 도적 떼를 데리고 빈 섬으로 들어가 이상국 건설을 시험함. ③ 섬을 떠나 나라 안의 가난한 사람을 두루 구제하고, 변 씨와 교분을 맺음.
위기	변 씨가 소개한 이완 대장을 만나 허생이 부국강병을 위한 시사 삼책을 제시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결정	이완 대장을 크게 질책하면서 사대부들의 허위의식을 비판함.
결말	허생이 종적을 감춤.

■ <허생전>의 주요 특징

-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 권10의 <옥갑야화>에 실려 있는 한문 단편 소설로 당대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문제와 지배 계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함.
- 비범한 식견과 능력을 지닌 ‘허생’이라는 인물을 내세우고, ‘허생’의 행적을 따라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전개하며 작가의 비판 의식을 드러냄.
- 사건이 뚜렷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허생이 종적을 감추는 ‘개방적인 결말 구조’는 암시와 여운을 남겨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허생의 이인(異人)다운 풍모를 부각함.

■ '허생'의 행적에 나타난 작가의 비판 의식

'허생'의 행적	작가의 의식
과일과 밭농을 사재기하여 본문을 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사회의 취약한 경제 구조 비판 · 양반 계층의 허례허식 비판
도적 배를 데리고 빈 섬으로 들어감.	
아만 대장에게 시사 삼책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함.	

반영

■ <허생전>의 '빈 섬'

- 가족을 바탕으로 한 풍요로운 농경 사회
-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허생의 포부를 시험해 보기 위한 곳
- 도적이 된 가난한 양민들을 데리고 들어가 풍요로운 공동체를 새롭게 건설한 곳
-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구분 없는 공동체

■ 미완의 결말 구조

현실의 문제, 인물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주인공이 잠적하는 결말.



- 허생의 가치관이 당시 조선의 현실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급진적인 것임을 암시함.
- 허생의 이인(異人)다운 풍모를 부각함.
- 어운을 남기고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함.

■ 전통과 관습을 버린 인물들의 예

변오기	복수를 하기 위해 목숨을 버려 자신의 머리를 갖다 바치도록 함.
무령왕	적과 싸우기 위해 전쟁에서 활동하기 편한 오랑캐의 옷을 입음.



기존의 예법과 명분에 얽매인 사대부들의 무능함, 허례허식, 관념성을 비판함.

■ 허생의 시사 삼책(時事三策)

허생이 당대 사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함.

적극적인 인재 등용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하지 않는 현실 비판
명나라 후손들을 후대하는 것	북벌론의 허구성 지적, 훈척과 권귀들의 기득권 비판
청나라와의 교류 촉구	사대부들의 허례허식과 북벌론의 허구성 비판

■ <허생전>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

- 경제적 배경 - 취약한 경제 구조, 백성들의 피폐한 삶
 - 상공업이 장려되지 않고 유통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경제가 침체됨.
 - 서민들은 최소한의 삶의 기반조차 잃어버리고 유랑민이나 도적이 되어 살아감.
- 사회·제도적 배경 - 신분 질서의 동요
 - 허생처럼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 변 씨처럼 경제적으로 성장한 평민이나 중인이 등장함.
 - 서민 의식이 향상하면서 지배층의 무능과 허위가 비판·풍자의 대상이 되기 시작함.
- 사상적 배경 - 실학사상과 북학론의 대두
 -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상공업을 장려해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실용적 학문이 등장함.
 - 이용후생의 측면에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청나라 문물의 도입을 주장한 북학론이 대두함.

■ 허생과 이완 대장의 입장 차이

허생의 계책에 대한 이완의 입장

- 1계책은, 임금이 신하에게 몸을 낮출 수 없으므로 불가함.
- 2계책은, 종실과 훈척 권귀들이 기득권을 버리지 않을 것이므로 불가함.
- 3계책은, 변발과 호복은 사대부들의 예법에 어긋나므로 불가함.

허생

실리를 중시하여 과감하면서도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

이완

명분을 중시하여 임금과 사대부들의 체면, 예법, 기득권을 지키려 함.

■ 위정자들에 대한 허생의 반감

이완 대장에 대한 허생의 태도

- 일부러 밤늦도록 기다리게 함.
- 그가 들어왔을 때에도 일어나지 않음.
- 찾아온 뜻을 설명하는 그를 꾸짖음.

당시의 위정자들(북벌을 외치면서도 행동과 의지가 결여된 이들)에 대한 반감이 드러남.

■ <허생전>의 주요 등장인물

허생

비범한 풍모를 지닌 가난한 선비.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이용후생의 실학사상을 실천하는 인물이다.

허생의 아내

실용적 사고방식을 지닌 인물로 경제적 능력을 중시한다. 허생이 자신의 포부를 시험해 보기 위해 상행위와 이상국 건설에 나서는 계기를 마련하는 인물이다.

변씨

허생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보는 뛰어난 안목을 지닌 인물로, 허생과 이완 대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완 대장

작가의 비판 대상이 되는 인물로, 무능한 지배층을 대변하고 과거의 인습에 얽매어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인물이다.

■ 능력 있는 인재를 쓰지 못하는 현실

역사적 인물의 예

큰 능력을 가졌으나 펼치지 못한 인물들 - 조성기, 유형원

허생 자신

그들처럼 쓰임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북벌을 외치면서도 적극적인 인재 등용을 하지 않는 집권층의 모순된 행위를 비판함.

■ 허생의 운명론적 사고 방식 -

큰돈을 벌 수 있었던 까닭

자신이 가진 재주보다는 하늘의 뜻[天命] 때문이었다고 말함.

운명론적 사유

■ '빈 섬'에서 실현한 이상향의 모습

- 농업을 기본으로 함.
- 상업을 중시해 외국과 교역을 함.
- 식량과 비축하고 부를 축적함.
- 굶주린 빈민들을 구제함.
- 예의법절을 중시함.

■ 변 씨의 역할

허생과의 대화를 통해 허생의 가치관을 드러냄.

변 씨의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떻게 큰돈을 벌었는가? 내가 돈을 빌려줄지 어떻게 알았는가? 재주를 뽐내지 않고 묻혀 사는가?



변 씨의 질문에 대해 허생이 지금까지의 행동의 이유와 근거,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밝힘으로써, 변 씨는 허생이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도록 만듦.

■ 재물에 대한 허생의 이중적인 태도

100년 전	[사회적·공적 측면] 백성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현실의 모순과 문제를 해결해 줌.
--------	--

과 100년 전	[개인적·사적 측면] 도를 살찌울 수 없고 정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재앙이 될 수 있음.
----------	---

■ 장사치에 대한 허생의 부정적 인식

- 막대한 부를 얻었음에도 정신의 살찌움을 중시하며 장사치로 여겨지는 것을 불쾌해함.
- 경제, 상업, 현실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은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모습에서, 작가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급 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허생이 도적들에게 제공한 삶의 조건

■ 도적 문제를 해결한 허생의 비범함

당시 조선의 집권층은 변산의 도적떼들을 토벌하지 못한 채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허생은 도적떼들에게 양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들을 채워 준 후 그들을 설득해 '빈 섬'으로 모두 데려간다. 이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허생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집권층의 무능함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내	사회의 근간인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함.
집	삶의 기본적인 터전을 마련해 줌.
소, 논밭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줌.



양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집권층이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제시함.

☞ 참고 자료 <허생전>의 '빈 섬'과 <홍길동전>의 '율도국'

<허생전>의 '빈 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을 바탕으로 한 풍요로운 농경 사회: 농업을 기반으로 잉여 농산물을 주변국과 교역함으로써 경제적 풍요를 이룬 곳 · 포부를 실현하려고 선택한 시험의 공간: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포부를 시험해 보기 위한 곳 · 새롭게 건설한 공간: 도적이 된 가난한 양민들을 데리고 들어가 풍요로운 공동체를 만듦. · 지배층과 피지배층 구분이 없는 공동체: 자신이 섬을 나오며 '글을 아는 자들을 함께 데리고 나옴.'

<홍길동전>의 '율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상적인 낙원: "산무도적(山無盜賊)하고 도불습유(道不捨遺)하는", 즉 산에는 도적이 없고 길에 물건을 떨어뜨려도 가져가는 이가 없는 곳 · 도피처의 성격을 띤 공간: 조선에서 자신의 이상이 실현되지 못하자 조선을 떠나 정착한 곳 · 이미 있는 나라를 정벌해 지배하는 공간: 조선을 떠나 남경으로 가던 중 율도국을 발견하고 정벌하여 스스로 왕이 됨. · 봉건제의 질서가 유지되는 공간: 홍길동 스스로 왕이 되고, 왕으로서 율도국 백성들을 지배함.

『빈 섬』에 도착한 허생의 탄식

빈 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생이 이상향을 만들고자 한 공간 • 섬의 크기가 작아 자신의 큰 뜻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아쉬움을 느낌.
-----	---

→ 앞서 조선의 작은 경제 구조를 비판했던 것을 고려하면, 허생은 시장 규모가 더 커져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허생의 상행위에 담긴 현실 비판

상행위	과일을 독점해 과일값이 뛰어 온 나라가 제사, 잔치를 치르지 못함.
	말총을 독점해 말건값이 뛰어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함.



현실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냥으로 나라의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작은 경제 규모와 취약한 유통 구조를 비판함. • 값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과일, 말총을 사들일 정도로 제사나 의관 등의 예법에 집착하고 허례허식에 빠져 있는 사대부들을 비판함.

『허생』에 대한 상반된 평가

자제들과 손님들
'술이 빠진 실피, 자빠진 갓신, 허름한 도포' 등을 보고, 허생을 거지라고 여김. ⇒ 보통 사람들의 안목, 겉모습만으로 인물을 평가함.



변 씨
'간단한 말, 오만한 눈빛, 부끄러움이 없는 기색' 등을 보고, 허생이 재물욕이 없고 큰 뜻을 지녔다고 여김. ⇒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비범한 안목으로 인물을 평가함.

『허생』과 『허생 아내』의 갈등

허생	허생의 아내
가장임에도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생계에 관심이 없음. 글 읽기에만 열중하며 독서의 완성을 추구함.	무능한 가정을 대신해 생계를 유지함. 남편에게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함.
비실용적, 관념적 사고	실용적, 실리적 사고

『허생』과 『변 씨』의 성격과 인물 유형

허생	경제적으로는 무능하지만, 돈을 벌리면서도 당당하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잃지 않음. ⇒ 조선 후기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 계층' 대표
변 씨	한양에서 제일가는 부자. 처음 보는 허생에게 큰돈을 빌려줄 만큼 배포가 크고 대범함. ⇒ 조선 후기 새롭게 성장한 '신흥 상인 계층' 대표

‘의 행적에 반영된 작가의 현실 인식

의 행적	작가의 현실 인식
책 읽기만 좋아하고, 먹고사는 것과 관련한 실질적인 일에는 무관심함.	현실과 동떨어진 사대부의 관념성과 무능함, 비생산성 비판
변 씨에게 빌린 만 냥으로 사재기를 하여 나라 경제를 흔들고 큰돈을 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의 취약한 경제 구조 비판 • 양반 계층의 허례허식 비판
도적이 된 양민들을 빈 섬으로 데리고 들어가 생활 근거를 마련해 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층의 무능과 부도덕 비판 • 이용후생(利利用厚生)의 정책 부재 비판
이완 대장에게 시사 삼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 등용의 문제점 비판 • 북벌론의 허구성 비판 • 집권층의 무능과 허례허식 비판

“허생전” 드라마의 배경

1.이 소설에 나타난 ‘허생’의 행적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정리해 보자.



2. 다음 사건들을 근거로 하여 이 소설에 나타난 당대 사회상을 파악해 보자.

사건	당대의 사회상
‘허생’이 만 금으로 과일과 말총을 사재기하여 큰돈을 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조선 사회의 경제 구조가 매우 취약했음. • 당대 양반들은 예법에 얽매어 있어서 제사나 옷차림 등과 관련하여 허례허식이 매우 심했음.
‘허생’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수천의 도둑을 데리고 빈 섬으로 들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 계층이 무능하고 부도덕하여 민생이 피폐해졌음. • 백성들을 가난에서 구제할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정책이 부재했음.
‘허생’이 ‘이완 대장’에게 나라의 정책에 관해 세 가지 제안을 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 등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지배 계층이 북벌론을 주장했지만 그저 말뿐이며 주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의지가 없었음.

3.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 보여 준 말이나 행동을 근거로 하여 ‘허생’의 성격을 파악해 보자.

- *허생의 아내: 가난한데도 글만 읽고 ‘아내’가 샅바느질하여 겨우 먹고산 것으로 보아, ‘허생’은 생계에 관심이 없고 글공부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 *변 씨: 허생은 일면식도 없는 변 씨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아갔으면서 위촉되거나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시종 당당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로 보아 허생은 선비로서의 자존감이 높고 주관이 분명한 사람이다.
- *도적 떼: 허생은 가난 때문에 도적이 된 양민들에게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이로 보아 허생은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대부로서의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지닌 사람이다.
- *이완 대장: 북벌과 부국강병을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지배 계층의 관점만 대변하는 이완 대장에게 분노하는 것을 볼 때, 허생은 당대 지배층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질타하는 비판적 지식인이자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인명진” 탐문 실지

1. 첫머리의 배경 묘사는 이 작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 살림이 매우 가난한 것과 허생이 자기 집안을 돌보는 데 무관심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 남산 아래가 주로 남민 계통의 몰락한 선비들이 살았던 곳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허생의 신분과 처지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아내’는 왜 ‘허생’에게 화를 내었는가?

허생이 가장으로서 집안의 생계를 전혀 돌보지 않고, 실용과는 무관한 책 읽기만 좋아했기 때문이다.

3. ‘변 씨’는 ‘허생’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행색은 초라하지만 재물에 욕심이 없고 떳떳한 마음을 지닌 비범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4. ‘허생’이 사재기의 대상으로 말총을 고른 까닭은 무엇인가?

망건, 갓, 탕건 등은 양반 남성들이 예법에 맞는 옷차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건이었다. 이들의 재료는 모두 말총이었고 대체재가 없었다. 허례허식에 얽매인 양반들은 예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물건값이 크게 올라도 그것을 반드시 구입했기 때문에, 큰돈을 벌기 위해 말총을 사재기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5. ‘허생’과 도적들의 대화를 근거로 하여 그들이 도적이 된 까닭을 추측해 보자.

도적들은 밭도 아내도 구할 길이 없어 ‘괴로운’ 도적의 길로 들어선 자들이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하여 그들이 나라의 실정(失政)과 지배층의 무능 때문에 극도의 가난으로 내몰렸고,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적이 되었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6. ‘허생’이 도적들을 데리고 빈 섬으로 들어간 의도는 무엇일까?

가난 때문에 도적이 된 양민들에게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자신의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7. 섬을 빠져나올 때 ‘허생’이 글을 아는 사람을 모두 데리고 나온 까닭은 무엇인가?

글을 아는 자들이 훗날 섬사람들을 해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리공론(空理空論)을 일삼고 백성을 착취하는 양반 사대부들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8. ‘변 씨’의 말에 ‘허생’은 왜 화를 내었는가?

변 씨는 허생에게 받은 돈 가운데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더 받은 돈을 되돌려 주려 했다. 그러나 허생의 관점에서 이러한 태도는 장사꾼의 계산과 합리성에 불과했고, 그래서 허생은 변 씨가 자신을 장사꾼처럼 대한다고 생각하여 화를 낸 것이다.

9. 변 씨는 허생에게 받은 돈 가운데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더 받은 돈을 되돌려 주려 했다. 그러나 허생의 관점에서 이러한 태도는 장사꾼의 계산과 합리성에 불과했고, 그래서 허생은 변 씨가 자신을 장사꾼처럼 대한다고 생각하여 화를 낸 것이다.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 이 안에서 소비됩니다.”라는 허생의 말에서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당시의 조선은 외국과의 교역이 제한되어 있고 수레를 이용한 물산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해, 경제 구조가 매우 취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취약한 경제 구조가 허생이 사재기의 방식으로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10. ‘허생’은 ‘지금 나라의 정치를 도모한다는 인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로는 북벌론을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인재의 등용에는 힘쓰지 않는, 무능하고 모순된 인물들이라 비판하고 있다.

11. ‘허생’이 ‘이완 대장’에게 제시한 계책 세 가지는 무엇인가?

- ① 적극적인 인재 등용 ② 명나라 후손들을 후대하는 것 ③ 청나라와의 교류 촉구

12. ‘허생’이 큰소리로 ‘이완대장’을 꾸짖은 까닭은 무엇인가?

말로는 부국강병을 주장하지만 그 주장을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지배 계층의 실상을 알고도, 그러한 지배층의 관점만 대변하는 이완 대장의 태도에 분노했기 때문이다.

“집정집” 두집 집정

1 | 63쪽 14~16행
“ 장인바치 일이라도 하지 그러시오?”
“ 일은 본래 배우지 못했으니, 어찌하란 말인가?”
“그럼 장사가 있겠습니까?”

↳ ‘사(士)보다는 유능한 ‘공(工)과 ‘상(商)’이 더 낫다는 작가의 생각이 ‘아내’의 목소리를 통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내’의 이와 같은 발언은 당시에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 질서가 적잖이 흔들리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2-(2) 허생전 [이론편]

2

04 3~4행

“ 책을 읽더니 고작 배운 게 ‘어찌하란 말인가’라는 말뿐이오? 장인바치 일도 못 한다, 장사도 못 한다면, 어찌서 도적질은 못 하는 게요?”

↳ 사대부의 무능을 신랄하게 비판한 부분이다. 아무리 사대부라 해도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불성실하다면 그것은 도적질하는 것만큼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통념에서 벗어난 이러한 발언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태도를 중시했던 작가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전기 ① | 04쪽 12~17행

허생은 번 씨*를 만나 길게 읊을 하고는, ~ 허생은 끝내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 버렸다.

↳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 큰돈을 빌리는 입장이면서도 비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허생의 태도가 드러난다. 그의 오연(傲然)한 성격과 비범함을 엿볼 수 있다.

4

05쪽 17~19행

한편 만 금을 빌린 허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바로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며 거처를 마련하였다. 안성 지방이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이고, 삼남 지방의 길목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예로부터 안성은 삼남(三南)의 물산이 모여드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유명했고, 조선 후기 안성 시장은 물품 유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허생이 자신의 뜻한 바를 이루고자 안성으로 간 것은 이러한 배경과 관련된다.

5

05쪽 22~26행

허생이 과일을 사재기하는 바람에 나라 안에서는 연회를 열거나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 “겨우 만 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 당대의 취약한 경제 구조와 ‘연회나 제사’로 상징되는 허례허식의 풍속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드러난다.

6

전기 ② | 06쪽 16~17행

“땅이 고작 천 리가 못 되니,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땅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하여 그 저 돈 많은 늙은이는 될 수 있겠구먼.”

↳ 사람이 살 만한 섬을 수소문하여 찾아갔으나 이상향 건설의 포부를 실현하기에 ‘빈 섬’은 규모가 너무 작아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허생의 인식과 그로 인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7

07쪽 3~4행

“덕(德)만 있다면 사람이란 절로 모이게 마련이네. 덕이 없을까 걱정해야지, 어찌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겠는가?”

↳ 《논어(論語)》 <이인 편(里仁篇)>의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 덕이 있는 자는 고독하지 않으며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다.)”에서 비롯한 말이다. 허생이 비록 장사를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기치인(修己治人: 자신의 수양에 힘쓴 후에 만인이 잘 살 수 있게 다스린다.)’을 지향하는 유가의 사대부로서 자신의 직분을 다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따름이며, 사대부로서 허생의 근본적인 정체성에는 변화가 없음을 보여 주는 말이다.

8

07쪽 5~7행

그때 전라도 변산반도에는 도적 떼 수천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 지방의 고을과 군에서 군졸을 풀어서 체포하려고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다. 도적 떼도 감히 나돌아 다니며 노략질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바야흐로 굶주림에 허덕였다.

↳ 역사적 배경과 작품의 앞뒤 맥락을 살펴볼 때, 여기에 등장하는 도적 떼는 궁핍한 현실을 견디지 못해 도적이 된 양민들이다. 그런데 나라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모색하지 않고 이들을 토벌의 대상으로 여기는 모습에서 당시 지배 계층의 무능을 비판하는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2-(2) 허생전 [이론편]

9 67 15행

“ , 밭 있고 아내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된단 말이지?”

↳ 꾸러 나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갖추기 힘들었던 당대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양민들을 도적의 길로 내몰았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10 69쪽 3행

그리하여 도적들이 돈을 짊어졌으나, 사람마다 고작 백 금을 넘지 못했다.

↳ 명색이 도적이면서 돈 백 냥도 짊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가난 때문에 오랫동안 굶주린 힘없는 백성들임을 암시하고 있다.

11 69쪽 6~7행

“지금 너희들은 비록 평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이미 도적의 명부에 올라 있으니 어디 갈 곳도 없을 것이다.”

↳ 허생이 도적들을 빈 섬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한 말로, 도적들이 허생을 따라 빈 섬으로 들어가는 사건에 인과적 필연성을 부여해 준다.

12 69쪽 13~14행

허생이 도적을 모두 쫓아 가자 나라 안에는 도적 걱정이 없어졌다.

↳ 나라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허생이라는 한 개인이 해결한 것으로, 이는 허생의 비범하고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한편 나라와 지배층의 무능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13 69쪽 17~18행

삼 년 먹을 식량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 일본의 장기도는 당시 매우 번성했던 국제 교역지로, 허생이 장기도에 가서 교역을 한 것은 작가의 선구적인 해외 진출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4 69쪽 24~26행

“내가 처음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의 계획으로는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 제도를 새로이 제정하려고 하였느니라.”

↳ ‘문자’와 ‘의관’은 새로운 문물과 제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허생이 꿈꾸었던 이상국의 기초이다. 허생은 이보다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이는 백성의 생활이 윤택하게 된 뒤에야 백성들의 의식을 바른 데로 이끌 수 있다는 작가의 실학사상이 반영된 것이다.

15 70쪽 2~4행

은자 오십만 냥을 바닷속에 던지며, ~ “하물며 이 작은 섬에서야.”

↳ 나라의 경제 규모가 백만 냥을 수용하기도 어려울 만큼 작다고 말하며, 나라 경제의 취약함을 비판하고 있다.

16 전개 ㉠ | 70쪽 14~15행

“그대의 얼굴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걸 보니, 혹 만 금을 다 털어먹은 건 아니요?”

↳ 여전히 초라한 허생의 행색을 보고, 변 씨가 오해를 해서 던진 질문이다. 비록 막대한 부를 얻었지만 허생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는 처음과 다름없이 한결같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다.

17 70쪽 17~18행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드르르해지는 일이야, 당신 같은 장사치들의 일일 뿐이요. 만 금이란 돈이 어찌 사람의 도(道)를 살찌우기야 하겠소?”

↳ 허생이 사대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이 보여 주는 대목이다. 재물보다 도를 우위에 두고, 몸이 살찌는 것보다 정신이 살찌는 것을 중시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사대부의 정신세계는 물질의 풍요로움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2-(2) 허생전 [이론편]

18

70 24행

“어째서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하려는 게요?”

↳ 사대부를 구분 짓고, 상인에 대한 사대부로서의 우월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구별은 작가가 지닌 계급의식의 한계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 뜻이 상인 신분을 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당대의 속물적인 장사치들에 대한 거부와 부정을 나타내는 데 있다고 볼 수도 있다.

19

70쪽 30행 ~ 71쪽 1행

“허 생원 님이랍니다. ~ 부인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허 생원이 집 나간 날짜에 제사를 지낸답니다.”

↳ ‘늙은 할미’가 서술자를 대신하여, 허생이 집을 나간 이후 5년 동안 그의 집에 일어났던 일을 요약하여 제시해 주고 있다.

20

71쪽 8~9행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니, 어찌 재물로 정신을 괴롭히고 싶겠소이까?”

↳ 지나친 물질적 풍요는 정신 수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허생의 생각이 담겨 있다. 선비로서 청빈한 삶의 자세와 안분지족(安分知足)의 태도가 드러난다.

21

71쪽 20~22행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나라 안을 다니질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물품이 이 안에서 생산되고 이 안에서 소비됩니다.”

↳ 외국과의 교역이 자유롭지 못하고 유통 구조가 취약해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물산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당대 조선 사회의 후진적인 경제 체제를 비판하는 작가의 의식이 담겨 있다.

22

72쪽 6~7행

“이런 사재기 방법은 인민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니, 후세의 당국자들이 만약 내가 써먹었던 이런 사재기를 한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말 것이요.”

↳ 독점 자본이 사재기와 같은 방식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폐단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허생은 비록 사재기로 큰돈을 벌기는 했지만 사재기 대상으로 선택한 물품은 양반들의 허례허식과 밀접하게 관계된 것들이었다. 이로부터 허생의 사재기가 당시 조선 사회의 취약한 경제 구조와 지배층을 비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3

72쪽 10~14행

“꼭 그대만 내게 돈을 빌려줄 뿐 아니라 만 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모두 빌려주었을 것이요. ~ 그 부자를 더 큰 부자로 만드는 것은 하늘이 명하는 것이지요.”

↳ 능력 있고 뜻이 바른 허생 같은 사람을 돕고 부자인 변 씨를 더 큰 부자로 만들려는 하늘의 뜻이 있었기에, 허생이 만 냥을 빌려 큰돈을 벌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허생이 큰돈을 벌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가진 재주보다는 하늘의 뜻[天命] 때문이었다고 말하며 운명론적 사유를 보여 주고 있다.

24

72쪽 19~21행

“시방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 내려고 하니, ~ 그런 재주를 가지고 어찌 괴롭게 어둠에 파묻혀서 일생을 마치려고 합니까?”

↳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당한 수모를 설욕하기 위해 사대부들 사이에서 북벌론이 제기되었던 당대의 정치 상황을 보여 주는 대목으로, 지금이야말로 허생과 같은 인재가 필요한 때라는 작가의 현실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 대화를 기점으로 작품의 화제가 정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2-(2) 허생전 [이론편]

25

72 22행 ~ 73목 4행

“어둠에 과몰했던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었소? 졸수재 조성기 같은 분은 적국에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건만 평생 벼슬 없이 배잠방이*를 걸친 채 늙어 죽었고, ~ 지금 나라의 정치를 도모한다는 인물들을 알 만하지 않겠습니까?”

↳ 같은 정치적 주장은 무성하게 하면서 정작 그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 등용 정책을 펴지 않는 당시의 모순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26

위기 | 73목 19~25행

허생은 짐짓 못 들은 척하며, ~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왔으나, 허생은 편안하게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 정승이자 어영청의 대장인 이완을 대하는 허생의 태도에서, 그가 이완 대장을 비롯한 북벌론자들, 또는 정치가들에게 반감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7

74목 6~8행

“내가 응당 재야에 숨어 있는 와룡 선생을 천거할 터이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 그에게 삼고초려(三顧草廬) 할 수 있게 하겠는가?”

↳ 허생이 제시한 시사 삼책(時事三策) 중 첫 번째 계책이다.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임금이 직접 나서 삼고초려 할 만큼의 진정성과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불합리한 인재 등용의 현실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8

74목 19~17행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은 조선이 예전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여겨서 ~ 훈척과 권귀들의 집을 몰수하여 그들의 살림집으로 내어 줄 수 있게 하겠느냐?”

↳ 허생이 제시한 시사 삼책 중 두 번째 계책으로, 지배층이 명나라의 은혜를 갚기 위해 청나라를 정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명나라 유민을 돌보지 않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실천 없이 말만 앞세우는 북벌론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다.

29

74목 19~20행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 ,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한다면 대관절 무슨 일이 가능하겠느냐?”

↳ 허생의 제안과 이완의 거절이 되풀이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당대 지배층이 주장하던 북벌론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가 보다 분명해진다.

30

74목 28행 ~ 76목 10행

“대저 천하에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어 ~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나라의 치욕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 허생이 제시한 시사 삼책 중 세 번째 계책으로, 청나라와 실질적으로 교류하여 그들을 파악해야 비로소 나라의 치욕을 씻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31

결정 | 76목 11~14행

“지금 명나라를 위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면서도 그까짓 상투 하나를 아까워한 단 말이나. ~ 그걸 자기 댄에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나?”

↳ 실리와 거리가 먼 사대부의 허례허식을 비판하고, 주장과 실천이 일치하지 않는 북벌론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다.

32

결말 | 76목 21행

이튿날 다시 찾아갔더니 집은 이미 텅 비어 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 허생이 종적을 감추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방적인 결말 구조는 암시와 여운을 남겨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설화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어 허생의 이인(異人)다운 풍모를 부각한다. 한편으로 이러한 결말은 허생의 개혁안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임을 보여 주기도 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허생은 평소 애 알고 지내는 사람도 없고 해서, 곧바로 운 중가로 나아가 시장 사람들에게 물었다.

“한양에서 누가 가장 부자입니까?”

변 씨라고 말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허생은 드디어 그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 씨를 만나 길게 읊을 하고는,

“내가 집이 가난하여 조그마한 것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 있으니, 그대에게 돈 만 금을 빌릴까 하오.”

하니 변 씨는 “그러시오.”하고는 그 자리에서 만 금을 내주었다. 허생은 끝내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 버렸다.

변 씨 집의 자제들과 와 있던 손님들이 허생의 물골을 보니, 이진 영락없는 비렁뱅이었다. 허리를 두른 실띠는 술이 빠졌고, 갓신의 뒤축은 자빠졌으며, 갓은 찌그러지고 도포는 그을려 행색이 피죄죄한데다가, 코에서는 맑은 콧물이 줄줄 흘렀다. 허생이 가고 나자 모두들 대경실색하여 물었다. <중략>

한편 만 금을 빌린 허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바로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러 거처를 마련하였다. 안성 지방이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이고, 삼남 지방의 길목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의 과일들을 모두 시세의 곱절 가격으로 모조리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사재기하는 바람에 나라 안에서는 연희를 열거나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얼마 지나자 허생에게 곱절의 가격으로 팔았던 장사치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가격으로 되사 가게 되었다. 허생이 한숨을 쉬며 탄식하였다.

[A]“겨우 만 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허생은 다시 갈, 호미, 베, 명주, 솜을 사 가지고 제주도로 들어가서 그곳의 말총을 다 거두어들였다.

“몇 해가 지나면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과연 얼마 있다가 망건 값이 열 배로 치솟았다.

허생이 늙은 뱃사공을 찾아서 물었다.

“바다 밖에 사람이 살 만한 ㉠빈 섬이 있던가?”

“있습지요. 언젠가 태풍에 표류하여 곧장 서쪽으로 사흘을 가서 한밤중에 어떤 빈 섬에 닿았습니다. 따져 보니까 중국의 사문과 일본의 장기도의 중간쯤 될 겁니다. 꽃나무가 절로 피며, 과일이 절로 익어 있고, 사슴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물고기는 사람을 봐도 놀라질 않았습지요.”

허생이 크게 기뻐하며,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준다면 부귀를 함께 누리게 해 줘세.”

하니 사공이 그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 방향으로 가서 섬에 들어가게 되었다. 허생은 섬의 높은 곳에 올라서 사방을 둘러보고는 그만

실망하여 탄식하였다.

“땅이 고작 천 리가 못 되니,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땅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하여 그저 돈 많은 늙은이는 될 수 있겠구먼.” <중략>

그때 전라도 변산반도에는 도적 떼 수천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 지방의 고을과 군에서 군졸을 풀어서 체포하려고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다. 도적 떼도 감히 나돌아 다니며 노략질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바야흐로 굶주림에 허덕였다. 허생이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서 괴수를 달랬다. <중략>

도적들이 코웃음을 쳤다.

“아니, 밭 있고 아내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든단 말이오?”

“자네들이 그렇게 잘 안다면 어째서 장가를 들어 살림을 장만하고, 소를 사서 밭을 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겐가? 그리 되면 살아서 도적놈이란 이름도 없을 것이고, 집에 살면서 부부의 즐거움도 있을 것이며, 나돌아 다녀도 관에 붙잡힐 염려가 없을 것이고, 길이길이 의식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어찌 그런 생활을 원하지 않겠소이까? 다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 뿐이죠.”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들이 명색 도적질을 하는 도둑놈이려면 먼저 돈 없이는 걱정을 다 하누? 내가 자네들을 위해 돈을 마련해 줄 것이네. 내일 바닷가를 바라보게나. 바람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배가 모두 돈을 실은 배일 터이니, 어디 자네들 마음껏 한번 가져가 보게.”

허생이 도적들과 약조를 하고 떠나자, 도적들이 모두 ‘미친 놈’이라고 비웃었다. <중략>

한편 섬으로 들어간 허생과 도적들은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땅기운이 온전하다 보니 온갖 곡식이 심는 대로 크고 무성하게 자라고, 김을 매고 쟁기질을 하지 않아도 한 줄기에 아홉 이삭이 달렸다. 삼 년 먹음 식량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장기도는 일본에 속한 고을로, 삼십일만 호가 되는 큰 지방인데 바야흐로 큰 기근이 들어 있었다. 그리하여 굶주린 사람들을 진휼하고 은 백만 냥을 얻게 되었다.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야 나의 조그마한 시험을 마치게 되었구나.”

하고는 남녀 이천 명을 모두 모아 놓고 명을 내렸다.

“내가 처음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의 계획으로는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제도를 새로이 제정하려고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 땅이 좁고 내 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려나. 아이들이 태어나 손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손으로 잡도록 가르치고,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하게 하라.”

그러고는 다른 배를 모두 불살라 버리고,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테지.”

하고 은자 오십만 냥을 바닷속에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얻는 사람이 생기겠지. 백만 냥이나 되는 돈은 나라 안에서는 놓아둘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 작은 섬에서야.”

했다. 글을 아는 사람은 모두 배에 실어서 함께 섬을 빠져 나오며,

“이 섬에 화근을 없애려 함이네.” 라고 하였다.

물론 나온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돈을 그렇게 써도 아직 은자 십만 냥이 남았다. <중략>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드르르해지는 일이야. 당신 같은 장사치들의 일일 뿐이오. 만 금이란 돈이 어찌 사람의 도(道)를 살찌우기야 하겠소?”

이에 은 십만 냥을 변 씨에게 주며,

“내가 순간의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책 읽기를 마저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만 금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이다.”

하니 변 씨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 절을 하고 십만 냥을 다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며, 심분의 일만 이자로 쳐서 받겠다고 하였다. 허생이 버럭 화를 내며,

“당신은 어째서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하려는 게요?”

하고는 옷자락을 뿌리치고는 획 가 버렸다. <중략>

변 씨는 그제야 그의 성씨가 허씨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이튿날 변 씨는 허생에게 받은 은자를 모두 가지고 가서 그에게 돌려주었다. 허생은 사양하였다.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백만 금을 버리고 이까짓 십만 금을 취하려고 하겠소? 내가 지금부터는 그대의 도움을 받아 가며 살아갈 터이니, 그대가 나를 자주 들여다보고 먹는 입을 따져서 양식을 보내 주고, 몸을 헤아려 옷감이나 보내 주구려. 한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니, 어찌 재물로 정신을 괴롭히고 싶겠소이까?”

변 씨가 백방으로 허생을 달래 보았지만 끝내 어찌할 수가 없었다. 변 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양식과 옷가지가 떨어질 만한 때를 헤아렸다가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가져다주었다. 그러면 허생도 흔연히 받아들였고, 만약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오면 언짢아하면서,

“그대는 어째서 내게 재앙을 안겨 주려는 것이오?” 하였다. <중략>

밤중에 이 대장은 아랫사람을 물리치고 변 씨와 둘이 걸어서 허생의 집에 당도했다. 변 씨는 이 공을 문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만나 보고 이곳에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생은 짐짓 못 들은 척하며,

“그만, 자네가 차고 온 술병이나 이리 풀어 놓으시게.”

하고는 서로 즐겁게 마셨다. 변 씨는 이공을 밖에서 기다리

게 해 놓은 것이 민망하여 여러 차례 말을 꺼내 보았으나, 허생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허생이 말했다.

“손님을 불러도 되겠소.”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왔으나, 허생은 편안하게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 둘 바를 모르고 엉거주춤하다가 겨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려는 뜻을 설명하였다. 허생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밤은 짧운데 말이 너무 길어서 듣기에 아주 지루하구먼. 그래, 너는 지금 무슨 벼슬을 하느냐?”

“어영청 대장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바로 나라에서 신임받는 신하가 아니더냐. 내가 응당 재야에 숨어 있는 와룡 선생을 천거할 터이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 그에게 삼고초려(三顧草廬)할 수 있게 하겠는가?”

이 대장은 머리를 숙여 골똘히 생각하더니 한참 만에 대답했다.

“어렵겠습니다. 그다음의 것을 듣고자 합니다.”

“나는 ‘그 다음’이란 말은 아직 배우지 못했도다.”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은 조선이 예전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여겨서 그 자손들이 되놈의 나라에서 몸을 빼어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왔으나, 이리저리 떠돌며 흠뻑으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가 많다. 네가 임금께 아뢰어 종실의 여자들을 뽑아서 두루 시집을 보내고, 훈척과 권귀들의 집을 몰수하여 그들의 살림집으로 내어줄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다가 대답하였다.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한다면 대관절 무슨 일이 가능하겠느냐? 아주 쉬운 일이 있으니,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어 결탁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법이고, 남의 나라를 정벌하려면 먼저 첩자를 쓰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족이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나, 아직 중국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어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형편이니, 이때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술선해서 복종한다면 저들에게 신뢰를 받을 것이다. 만약 당나라, 원나라 때의 예전 일처럼 우리 자제들을 청나라에 파견하여 학교에 입학하고 벼슬도 할 수 있게 하고, 장사치들의 출입도 금하지 말도록 저들에게 간청한다면, 저들도 자기네에게 친근하고자 하는 우리를 보고 반드시 기뻐하여 이를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자제들을 엄선하여 머리를 깎여 변발을 하게하고 오랑캐 복장을 입히고 선비들은 빈공과에 응시하고, 일반 사람들은 멀리 강남까지 장사를 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허실을 엿보고 한쪽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나라의 치욕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이 대장이 낙심하고 허탈해서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삼가 지키고 있거늘, 누가 기꺼이 머리를 깎고 오랑캐 옷을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중략>

허생이 대갈일성하며,

“도대체 사대부라는 게 뭐하는 것들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난 주제에 자칭 사대부라고 뽐내고 앉았으니, 이렇게 어리석은 데가 있느냐? 입은 옷이란 모두 흰 옷이니 이는 상복이고, 머리는 송곳처럼 뾰족하게 묶었으니 이는 남쪽 오랑캐의 방망이 상투이거늘, 무슨 놈의 예법이란 말인가? 지금 명나라를 위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면서도 그까짓 상투 하나를 아까워하던 말이나. 장차 말을 달려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하는 판에 그 따위 너풀거리는 소매를 바꾸지 않고서, 그걸 자기 판에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나?”

내가 처음에 너에게 세 가지 계책을 일러 주었거늘, 도대체 너는 한 가지도 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서도 신임을 받는 신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 신임 받는 신하라는 게 고작 이런 것이냐. 이런 자는 목을 잘라야 옳을 것이니라.” <중략>

이튿날 다시 찾아갔더니 집은 이미 텅 비어 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박지원, <허생전>

김해문성고등학교 (경남)

1. [A]에 나타난 허생의 심리를 추측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선 사회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비판하고 있다.
- ② 한 나라의 경제를 좌우한 자신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 ③ 지식이 부족해 돈을 벌지 못하는 장사치들을 얕잡아 보고 있다.
- ④ 농산물이 잘 자라지 않아 값이 오른 경제적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급의식이 반영되고 공리공론(空理空論)만 일삼는 사대부를 비판하고 있다.

김해문성고등학교 (경남)

2. ㉠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 허생은 섬의 규모가 작아 아쉬워한다.
 ㉡ 상업을 중시하여 외국과 교역을 하였다.
 ㉢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구분이 없는 곳이다.
 ㉣ 가족을 바탕으로 한 풍요로운 농경 사회이다.
 ㉤ 문자를 만들고 의관 제도를 새로이 제정하였다.
 ㉥ 조선 사회의 골칫거리였던 도적을 격리하기 위한 곳이다.
 ㉦ 현실에서 도피해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고자 한 허생의 목적을 실현하는 곳이다.
 ㉧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허생의 포부를 시험해 보기 위한 곳이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 ④ 5개 ⑤ 6개

김해문성고등학교 (경남)

3. <보기>의 ‘선생님’의 입장에서 허생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은 은체가 서 있는 걸 그대로 둔 채 천천히 말씀하셨다.

“허생이 졌다는 말은, 허생의 행동 전체를 놓고 독자인 우리가 평가하느라고 쓴 말입니다. 허생은 확고한 이상과 탁월한 능력을 지녔지만 그걸 다 실현하지 못했고, 그러니 불만스런 현실과 그 현실을 지배하는 사람한테 졌다고 본 겁니다. 도피했다고 볼 수도 있죠.

- ①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대책을 제시했다.
- ② 관념적인 공리공론을 일삼는 지식 계층에 불과하다.
- ③ 양반이라는 계급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 ④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실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 ⑤ 명분을 중시하며 실리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을 하지 않았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김해분성고등학교 (경남)

4. <보기>는 윗글에 나타난 재물에 대한 허생의 이중적인 태도를 정리한 것이다. ㉠, ㉡에 알맞은 말을 아래의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긍정적	부정적
[사회적·공적 측면]	[개인적·사적 측면]
백성들의 삶을 풍족하게 한다.	(㉠)
현실의 모순과 문제를 해결해준다.	(㉡)
	돈(재물)은 재앙을 안겨 준다.

- <조건>
- 윗글에서 허생이 말한 부분을 참고하여 '돈(재물)은 ~ 다.' 형식으로 쓸 것.
 - 띄어쓰기, 맞춤법,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감점

김해분성고등학교 (경남)

5. <보기>는 <허생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 <보기>
- ㉠ 신분 질서의 동요가 있었다.
 - ㉡ 변 씨는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 부유층이다.
 - ㉢ '이완' 대장은 무능한 당대의 지배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 ㉣ 작품 창작 당시 실학사상과 북학론(北學論)이 대두되었다.
 - ㉤ 이완 대장은 과거의 인습에 얽매어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인물이다.
 - ㉥ 허생은 부국강병(富國強兵)과 관련한 세 가지 계책을 모두 실현해 낸다.
 - ㉦ 허생은 '장유유서(長幼有序)'와 같은 기본적 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 ㉧ 허생이 북벌(北伐)을 위해 전략적으로 교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나라는 '명나라'이다.
 - ㉨ 풍자소설로 지배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한 한글 소설이며 고전 소설이다.

- ① 3개 ② 4개 ③ 5개
- ④ 6개 ⑤ 7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목적골에 살던 허생은 십년을 기약하여 글공부를 하던 중 굶주림에 견디다 못해 아내의 원성에 글공부를 접고 변 씨 부자에게 만 냥을 빌린다.

(가) 한편 만 금을 빌린 허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바로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러 거처를 마련하였다. 안성 지방이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이고, 삼남 지방의 길목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굴, 유자 등의 과일들을 모두 시세의 곱절 가격으로 모조리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사재기하는 바람에 나라 안에서는 연회를 열거나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얼마 지나자 허생에게 곱절의 가격으로 팔았던 장사치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가격으로 되사 가게 되었다. 허생이 한숨을 쉬며 탄식하였다.

“겨우 만 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허생은 다시 칼, 호미, 베, 명주, 솜을 사 가지고 제주도로 들어가서 그곳의 말총을 다 거두어들였다.

“몇 해가 지나면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과연 얼마 있다가 망건 값이 열 배로 치솟았다.

허생이 늙은 뱃사공을 찾아서 물었다.

“바다 밖에 사람이 살 만한 빈 섬이 있던가?”

“있습지요. 언젠가 태풍에 표류하여 곧장 서쪽으로 사흘을 가서 한밤중에 어떤 빈 섬에 닿았습니다. 따져 보니까 중국의 사문과 일본의 장기도의 중간쯤 될 겁니다. 꽃나무가 절로 피며, 과일이 절로 익어 있고, 사슴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물고기는 사람을 봐도 놀라질 않았습지요.”

허생이 크게 기뻐하며,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준다면 부귀를 함께 누리게 해 줘세.”

하니 사공이 그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 방향으로 가서 섬에 들어가게 되었다. 허생은 섬의 높은 곳에 올라서 사방을 둘러보고는 그만 실망하여 탄식하였다.

“땅이 고작 천 리가 못 되니,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땅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하여 그저 돈 많은 늙은이는 될 수 있겠구먼.”

그러자 사공이 물었다.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곤 없는데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지요?”

“덕(德)만 있다면 사람이란 절로 모이게 마련이네. 덕이 없을까 걱정해야지. 어찌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겠는가?”

<중간 줄거리> 허생은 변산의 도적들을 모아 돈을 나누어

주고, 처자와 소를 데리고 오게 하여 빈 섬으로 돌아간다.

(나) 한편 ㉠섬으로 들어간 허생과 도적들은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땅기운이 온전하다 보니 온갖 곡식이 심은 대로 크고 무성하게 자라고, 김을 매고 쟁기질을 하지 않아도 한 줄기에 아홉 이삭이 달렸다. 삼 년 먹을 식량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장기도는 일본에 속한 고을로, 삼십일만 호가 되는 큰 지방인데 바야흐로 큰 기근이 들어 있었다. 그리하여 굶주린 사람들을 진휼하고 은 백만 냥을 얻게 되었다.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야 나의 자그마한 시험을 마치게 되었구나.”

하고는 남녀 이천 명을 모두 모아 놓고 명을 내렸다.

“내가 처음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의 계획으로는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제도를 새로이 제정하려고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 땅이 좁고 내 덕이 얕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려나. 아이들이 태어나 손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손으로 잡도록 가르치고,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하게 하라.”

그러고는 다른 배를 모두 불살라 버리고,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테지.”

하고 은자 오십만 냥을 바닷속에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얻는 사람이 생기겠지. 백만 냥이나 되는 돈은 나라 안에서는 놓아둘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 작은 섬에서야.”

했다. 글을 아는 사람은 모두 배에 실어서 함께 섬을 빠져나오며,

“이 섬에 화근을 없애려 함이네.”

라고 하였다.

물론 나온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돈을 그렇게 써도 아직 은자 십만 냥이 남았다.

“이 돈이면 변 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겠군.”

허생이 변 씨를 찾아가서 보고는,

“나를 기억하시겠소이까?”

하고 문자 변 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대의 얼굴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걸 보니, 흑 만 금을 다 털어먹은 건 아니오?”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드르르해지는 일이야. 당신 같은 장사치들의 일일 뿐이오. ㉡만 금이란 돈이 어찌 사람의 도를 살찌우기야 하겠소?”

이에 은 십만 냥을 변 씨에게 주며,

“내가 순간의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책 읽기를 마저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만 금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이다.”

하니 변 씨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 절을 하고 십만 냥을 다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며, 십분의 일만 이자로 쳐서 받겠다고 하였다. 허생이 버럭 화를 내며,

㉢“당신은 어째서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하려는 게요?”

하고는 옷자락을 뿌리치고는 획 가 버렸다.

(다) 어느 날 변 씨가 조용한 틈을 봐서 어떻게 오 년 만에 백만 금을 벌어들였는지 물어보았다. 허생이 대답하였다.

“그야 가장 알기 쉬운 일이오.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나라 안을 다니질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물품이 이 안에서 생산되고 이 안에서 소비됩니다. 대저 천 금이란 돈은 작은 돈이므로 물건을 모두 사들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를 열로 쪼개면 백 금이 열 개가 되어서 열 가지 물건이야 충분히 살 수가 있겠지요. 물건의 단위가 가벼우면 굴리기 쉽기 때문에 설령 한 가지 물건이 밀진다 하더라도 나머지 아홉 개의 물건으로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사 방법은 정상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고, 작은 장사꾼이나 하는 수단이지요. 그러나 만 금이란 돈은 물건을 모조리 사재기할 수 있으니, 수레에 있는 것은 수레 전부를, 배에 있는 것은 배 전부를, 한 고을에 있는 것은 고을 전부를 마치 총총한 그물로 모두 훑어 내는 것처럼 싹쓸이할 수 있지요. 물에서 생산되는 만 가지 물건 중에서 한 가지를 몰래 사재기하고, 바다의 만 가지 어족 중에서 한 가지를 몰래 사재기하고, 약재 만 가지 중에서 하나를 몰래 독점하면, 그 한 가지 물건이 남몰래 잠겨 있는 동안에 모든 장사치의 물건이 말라 버리게 되지요. 이런 사재기 방법은 인민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니, 후세의 당국자들이 만약 내가 써먹었던 이런 사재기를 한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말 것이오.”

<중간 줄거리> 변 씨는 인재를 찾는 어영청 대장 이 완에게 허생을 소개해 준다. 허생은, 임금께 아뢰어 삼고 초려를 해서라도 인재를 구하고, 청을 피해 찾아온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에게 종실의 여자를 시집보내고, 훈척, 권귀의 집을 살림집으로 내주라 하였지만, 이완은 어렵다고 말한다.

(라) “대저 천하에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어 결탁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법이고, 남의 나라를 정벌하려면 먼저 첩자를 쓰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족이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나, 아직 중국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어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형편이니, 이때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숭선하여 복종한다면 저들에게 신뢰를 받을 것이다. 만약 당나라, 원나라 때의 예전 것처럼 우리 자제들을 ㉣청나라에 파견하여 학교에 입학하고 벼슬도 할 수 있게 하고, 장사치들의 출입도 금하지 말도록 저들에게 간청한다면, 저들도 자기네에게 친근하고자 하는 우리를 보고 반드시 기뻐하여 이를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자제들을 엄선하여 머를 깎여 변발을 하게하고 오랑캐 복장을 입히고 선비들은 빈공과에 응시하고, 일반 사람들

은 멀리 강남까지 장사를 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허실을 엿보고 한쪽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나라의 치욕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명나라 황족의 후손을 찾지 못하면, 천하의 제후들을 인솔해서 하늘에 임금 이 될 만한 사람을 천거하여, 잘만 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며, 못 되어도 성씨가 다른 제후국가 중에서는 제일 큰 나라로서의 지위는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이 낙심하고 허탈해서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삼가 지키고 있거늘, 누가 기꺼이 머리를 깎고 오랑캐 옷을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허생이 대갈일성하며,

"도대체 사대부라는 게 뭐 하는 것들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난 주제에 자칭 사대부라고 뽐내고 앉았으니, 이렇게 어리석은 데가 있느냐? 입은 옷이란 모두 흰 옷이니 이는 상복이고, 머리는 송곳처럼 뾰족하게 묶었으니 이는 남쪽 오랑캐의 방망이 상투이거늘, 무슨 놈의 예법이란 말인가? 변오기는 원한을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고 내주었고, 무령왕은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오랑캐 복장을 입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지금 명나라를 위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면서도 그까짓 상투 하나를 아까워한다면 말이나. 장차 말을 달려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하는 판에 그 따위 너풀거리는 소매를 바꾸지 않고서, 그걸 자기 판에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나? 내가 처음에 너에게 세 가지 계책을 일러 주었거늘, 도대체 너는 한 가지도 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서도 신임을 받는 신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 신임 받는 신하라는 게 고작 이런 것이냐? 이런 자는 목을 잘라야 옳을 것이니라."

하고 좌우를 둘러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고 하였다. 이 대장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뒷문으로 뛰쳐나가 재빠르게 달아났다.

이튿날 다시 찾아갔더니 집은 이미 텅 비어 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 박지원, '허생전'

금호고등학교 (서울)

6. 윗글의 특징과 문학적 의의에 대해 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조선 시대 후기 작품으로 한글 문학의 정수를 보여준다.
- ② 소설의 배경과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였다.
- ③ 인물 간의 갈등이 복잡하게 얽힌 고전 소설의 특징을 보여준다.
- ④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전개하였다.
- ⑤ 실제 사건과 인물들로 허구성을 배제하며 사실적으로 전개하였다.

금호고등학교 (서울)

7. 윗글의 밑줄 친 ㉠~㉣이 허생에게 갖는 의미를 바르게 말한 것은?

- | | | |
|---------------------|-------------------|--------------------------|
| ㉠ 안정 | ㉡ 섬 | ㉢ 청나라 |
| ① 경제제도의 취약성을 체험하는 곳 | 조선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는 곳 | 친명배척을 위해 일시적으로 따라야 할 대상 |
| ② 시험의 수단을 마련하는 곳 | 포부와 이상을 실현하는 곳 | 부국강병을 위해 넘어야 할 대상 |
| ③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곳 | 경제 정책을 시험하는 곳 | 병자호란의 수치를 씻기 위해 이겨야 할 대상 |
| ④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곳 | 경제의 야망을 품은 곳 | 사대부들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강대국 |
| ⑤ 유교적 이상을 품은 곳 | 출세를 도모하고 경륜을 쌓는 곳 | 조선이 본받아야 할 과학기술의 선진국 |

금호고등학교 (서울)

8.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평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허생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책만 읽으니 무능한 가부장이라 할 만하다.
- ② 허생의 아내는 문제를 제기하여 허생을 세상에 나가게 하는 인물이다.
- ③ 변 씨는 허생이 주는 돈을 사당한 것으로 보아 재물을 기피한 인물이다.
- ④ 변 씨는 허생에게 이름도 묻지 않고 만금을 빌려주었으니 배짱이 큰 인물이다.
- ⑤ 허생은 이완 대장에게 비굴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으니 기개가 뛰어난 인물이다.

금호고등학교 (서울)

9. 다음 중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허생은 자신의 행위로 후세가 교훈을 얻기를 바랐다.
- ② 허생은 아내의 다툼을 견디다 못해 공부를 중단하였다.
- ③ 허생은 사재기를 통해 조선 경제의 취약성을 실증하였다.
- ④ 허생은 양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사재기 품목을 정했다.
- ⑤ 허생의 아내는 가부장적 사회와 신분 사회를 부정하고 있다.

“초신성의 생명” 탐색 정리

㉑ 읽기 방법의 점검과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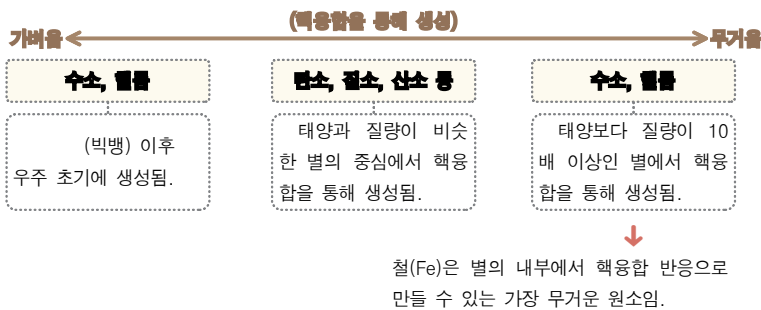
읽기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험과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보고, 궁금한 것을 질문 형식으로 만들기 읽기 목적과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읽기 방법 정하기
읽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기 읽기 전에 만든 질문의 답을 찾으며 읽기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하고, 글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읽기
읽기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내용 요약하기 새로 알게 된 점을 정리하고,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보기 글의 주제나 글에 담긴 관점을 비판하고, 대안 찾아보기 연관 독서하기: 관점을 비교할 수 있는 글, 글쓴이가 쓴 다른 글, 같은 소재를 다룬 다른 글 등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되돌아보기

→ 독자는 자신의 읽기 목적에 따라 적절한 읽기 방법을 적용하고, 읽기 과정에서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는다.

㉒ 주제 정리

갈래	수필	성격	성찰적, 사색적, 교훈적	제재	초신성
주제	우리 삶과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사회 ‘환원’의 가치				
목적	① 유추의 방식을 활용하여 ‘나눔’과 ‘사회 환원’의 가치를 전달함. ②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움.				
구성	처음	학생에게 ‘본(本)’을 묻는 글쓴이의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에 어리둥절해하는 학생			
	중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이 우주에서 생성된 과정 우주의 생명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초신성 폭발 인간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초신성과 유사한 예 			
	끝	폭발을 통해 중요한 원소들을 우주에 환원하는 초신성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나눔’의 가치			

생성



'으로부터 배우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



과학을 통해 발견한 자연 현상으로부터
 '바람직한 삶의 자세'라는 인문학적 주제를 이끌어 냄.

● 읽기 방법의 점검과 조정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읽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읽기 전·중·후 과정에 따라 적절한 읽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읽기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읽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확인하기. • 책의 표지, 제목, 목차, 삽화 등을 보고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 글의 내용 예측하기. • 글의 내용에 관한 질문 만들기. • 읽기 목적과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읽기 방법 선택하기.
읽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금하거나 중요한 내용에 밑줄 긋거나 약호 표시를 하면서 읽기. • 중심 내용 파악하기. •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 읽기 전에 만든 질문의 답을 찾으면서 읽기. • 글쓴이의 의도 추론하기. •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고 공감 또는 비판하기. • 사전이나 참고 자료를 활용해 어려운 내용 이해하기. • 글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해하기. • 글 속의 장면, 글 전체의 흐름과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 보기. • 글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며 읽기. • 읽기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다른 방법으로 바꾸기.
읽기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내용 요약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으로 요약하기, 구조도로 요약하기, 말로 요약하기. • 새로 알게 되었거나 깨달은 내용 정리하기. • 글을 읽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의 활용 방안 모색하기. • 글을 읽고 깨달은 바의 실천 방법 모색하기. • 글의 주제나 글에 담긴 관점을 비판하고, 대안 찾아보기. • 연관 독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은 글과 관점이 같거나 다른 글, 같은 소재를 다룬 글, 글쓴이가 쓴 다른 글 찾아 읽기. •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되돌아보기.

■ 생명의 관점에서 본 초신성의 역할

질량이 매우 큰 별이 초신성이 되기 전
황, 인, 마그네슘, 철 등을 생성함.

수명을 다하면 초신성이 되어 폭발함.
생성한 다양한 원소를 우주에 환원함.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탄생하는 데에 필
요한 원소들이 우주에 뿌려지게 됨.

■ 도입부의 대화 장면 삽입

대화를 직접 인용

- 글쓴이와 학생의 대화를 직접 인용함.
- 글쓴이가 학생에게 같은 질문을 되풀이함.

청중 및 독자들에게 주는 효과

-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킴.
- 글쓴이가 상식, 통념과 다른 새로운 관
점, 의도를 제시할 것임을 암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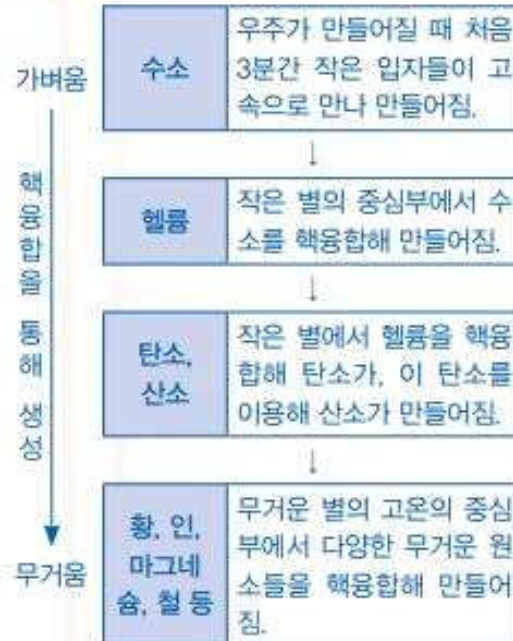
■ 유추를 통한 주제 전달

유추(類推)는 대상을 유사한
다른 대상에 기초하여 설명
하는 방식이다. 글쓴이는 바
람직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
지를 초신성의 특성에 기초
해 제시하고 있다.

초신성 [자연]	자신이 만든 원소 들을 우주에 환원 하여 수많은 생명 이 만들어지도록 함.
훌륭한 사람 [인간]	자신이 이룬 재화, 기술, 지식, 능력 등을 다른 사람들 에게 나누어 줌으 로써 다른 사람들 을 도움.

■ 원소들의 생성 방법

각 원소들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질량의
크기 순서로 설명함.



■ 문답법을 활용한 내용 전개

글쓴이는 글의 중간에 질문을 던진 후에
관련 내용을 제시하며 답을 밝힘.

- "이런 원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
디에서 만들어졌을까?"
- "초신성이 자기가 만든 귀한 원소들을
우주에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
이 일어날까?"

- 단락별 화제를 더 선명하게 제시함
- 독자가 글의 내용을 더 쉽게 예측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줌.

■ "본은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의
의미

- 글쓴이의 설명: 46억 년 전 초신
성이 우주에 환원한 원소들 덕
분에 인간이 태어났으므로 지구
상의 인구는 모두 형제와 같음.
- 학생에게 "본이 어디입니까?"라
는 질문을 다시 던짐.
— 글쓴이는 '본'을 성씨나 씨족
의 기원이 아니라, 인간과 생
명체를 이루는 원소들의 기
원을 의미하는 말로 쓴 것임.

“초신성의 생명” 두렵 질문

처음 | 84 3~5행

1 “ 박씨이군요. 그럼 본*은 어디입니까?” ~ 내가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자 학생이 어리둥절해한다.

↳ 강의할 때 학생과 주고받은 대화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학생이 대답을 했는데도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는 글쓴이의 행동이 독자의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통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을 독자에게 암시하고 있다.

중간 | 84쪽 6~10행

2 사람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황, 인이다. ~ 그러면 이런 원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 사람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근원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글쓴이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후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답법은 이 글에서 글쓴이가 사용한 주된 표현 전략으로, 질문을 통해 독자의 적극적인 사고를 유도하고 이후 전개 내용을 예측하게 한다.

84쪽 11~14행

3 우선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수소 원자는 우주 초기, 우주의 나이가 1초일 때부터 대략 3분이 될 때까지 만들어졌다. 빅뱅 이론을 정립한 조지 가모 교수는 뜨거운 초기 우주에서 작은 입자들이 고속으로 만나 어떻게 수소와 헬륨 원자핵을 최초로 만들었는지를 밝혀내었다.

↳ 빅뱅 이론은 우주가 태초의 대폭발로 시작되었다는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우주는 처음에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었다가 어느 순간 대폭발에 의해 팽창했다고 한다. 조지 가모는 1948년 논문을 통해 빅뱅 우주에서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발표하였는데, 빅뱅 후 1초가 되면 우주의 온도가 떨어져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을 시작하고, 빅뱅 후 3분 정도가 지나면 수소와 헬륨이 핵융합할 수 없는 온도로 떨어져,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율이 3 : 1로 고정된다고 보았다.

85쪽 1~2행

4 그러면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탄소, 질소, 산소는 태양과 같은 작은 별에서 만들어졌다.

↳ 질문을 던지며 다음 화제로 전환하고 있다. 앞 문단에서는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와 그 다음으로 가벼운 헬륨의 생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이제부터는 이들보다 무거운 원소들의 생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85쪽 9~11행

5 별의 최후는 주로 단단한 탄소 덩어리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이아몬드를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죽은 별을 탐사해 보길 권한다.

↳ 작은 별(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수명이 다하면 단단한 탄소 덩어리가 되는데, 이 점에서 다이아몬드와 그 특성이 유사하다. 다이아몬드는 순수한 탄소가 이루어졌으며 경도(硬度)가 높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이러한 사실에 착안해 글쓴이가 농담처럼 나타낸 표현이다.

85쪽 17~23행

6 큰 별들은 1,000만 년 정도로 짧게 살지만, ~ 철을 만든 후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 폭발을 한다.

↳ 별의 내부에서는 연쇄적인 핵융합 반응을 통해 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더 무거운 원자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별의 내부 온도와 밀도가 더 높아야 한다. 질량이 큰 별에서는 중력에 의한 응축에 의해 핵융합에 필요한 상태가 만들어진다. 연쇄적 핵융합 반응은 철(Fe)이 만들어지면서 멈추는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핵융합에 의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무거운 별은 철을 생성하여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폭발로써 생을 마감한다.

86 3~5행

7 초신성이 자기가 만든 귀한 원소들을 우주에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후에 태어난 젊은 별은 초기 우주가 만든 수소와 헬륨 등 극히 단순한 원소 외에는 갖지 못한 채 태어날 것이다.

↳ 별(태양보다 10배 이상 무거운 별)의 내부에서 생성된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 그리고 큰 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지는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로 우주 공간에 방출된다. 글쓴이는 이러한 초신성 폭발을 통해 무거운 원소들이 방출됨으로써 우주 공간에 다양한 원소들이 존재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86쪽 17~22행

8 즉, 70억 지구 인구는 모두 한 별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 이쯤 설명하고 나서, 학생에게 다시 묻는다. “학생의 본은 어디입니까?” 지혜로운 우리 학생, 곧 수줍게 답한다. “초신성입니다.”

↳ 글쓴이는 초신성 폭발에 대한 설명을 통해 결국 모든 인류가 같은 근원에서 나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시 글의 처음과 마찬가지로 글쓴이가 강의할 때 학생과 주고받은 대화를 인용하고 있다. 글쓴이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에는 ‘우리는 모두 한 별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는, 한 우주 안에서 태어난 형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86쪽 23행 ~ 87쪽 2행

9 우리 사회에도 종종 초신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 자연의 섭리가 인간 사회와 닮은 예 가운데 하나이다.

↳ 초신성이 자신이 만든 원소들을 우주로 환원하여 우주에 생명이 태어나게 했듯이, 우리 사회에도 자신의 재화, 기술, 지식, 능력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초신성과 유사한 예를 인간 사회에서 찾아 연결 지음으로써 주제로 나아가고 있다.

끝 | 87쪽 12~13행

10 당신은 초신성처럼 살고 싶은가?

↳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글을 마치고 있다. 앞서 제시한 초신성의 역할과 가치를 자신의 삶과 연결 지어 성찰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결국 우리 몸속의 원소 가운데 수소는 초기 우주가, 그 외 다른 원소들은 모두 작고 큰 별들이 제공했다. 특히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대부분 태양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약 46억 년 전 어느 날, 이 근처에서 살다가 초신성 폭발과 함께 생을 마감한 이름 모를 어느 거대한 별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⑦70억 지구 인구는 모두 한 별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두고 우리는 모두 한 우주 안에서 태어난 형제라고 우기는 것과 다르냐고 누군가 따진다면 달리 변명할 도리는 없지만, 그래도 신기하지 않은가. 우리 몸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이쯤 설명하고 나서, 학생에게 다시 묻는다. “학생의 본은 어디입니까?” 지혜로운 우리 학생, 곧 수줍게 답한다. “초신성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종종 초신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맘 흘려 이룩한 재화, 기술, 지식, 능력 등을 아낌없이 사회와 나누는 그런 사람들은 나눔으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도 한다. 자연의 섭리가 인간 사회와 닮은 예 가운데 하나이다.

언젠가 우리 대학교에 강사로 오신 한 연사께서 강연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셨다고 한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평생 5,000명의 노동에 기대어 살 가능성이 큼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오히려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 가능성이 크지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우리도 꼭 초신성 같구나!’ 하고 생각했다. 초신성에서 출발해서 그런가? 초신성이 그저 폭발만 한다면 엄청난 충격을 일으켜 주변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하지만 초신성은 그 폭발을 통해 중요한 원소들을 우주에 환원함으로써 오히려 우주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 아닌가. ㉡당신은 초신성처럼 살고 싶은가?

포항이동고등학교 (경북)

1. 위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도를 바탕으로 하여 핵심어를 찾고, 핵심어를 포함한 중심 내용을 작성했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신성 - 초신성의 폭발로 생명체가 생겨났다.
- ② 나눔 - 초신성은 스스로 폭발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했다.
- ③ 초신성 - 인류의 탄생은 초신성으로 비롯되었다.
- ④ 나눔 - 초신성처럼 인간의 삶도 나눔으로써 바람직하게 된다.
- ⑤ 초신성 - 초신성은 폭발을 통해 원소들을 우주에 환원했다.

포항이동고등학교 (경북)

2. ㉠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70억 지구 인류 모두의 몸속은 수소로 가득 차 있다.
- ② 글쓴이가 초신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내린 결론이다.
- ③ 지구촌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근거는 결국 초신성이다.
- ④ 태양계의 생명체 유무는 인류의 탐사로서 정확하게 밝혀진다.
- ⑤ 인류의 공통분모는 70억 명의 세포 분석을 통해 찾을 수 있다.

포항이동고등학교 (경북)

3. ㉡을 풀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가 초신성 설명을 통해 얻은 결론이다.
- ② 글쓴이의 질문과 학생의 대답은 동문서답이라 할 수 있다.
- ③ 글쓴이가 말한 ‘본’은 생명체의 기원으로서의 의미라 할 수 있다.
- ④ 학생이 ‘초신성’이라고 대답한 것은 글쓴이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 ⑤ 글쓴이는 ‘본’을 다시 물음으로써 씨족의 기원을 아는 것이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학생은 바싹이군요. 그럼 본은 어디입니까?” “본은 ○○입니다.” “본이 어디라고요?” “○○입니다.” “본이 어디입니까?” 내가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자 학생이 어리둥절해 한다.

사람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황, 그리고 인이다. 원자 개수로 치면 수소가 전체의 63퍼센트를 차지하고 질량으로 치면 산소가 전체의 26퍼센트를 차지하는 으뜸 원소이다. 철, 마그네슘, 나트륨과 같이 적은 양이지만 꼭 필요한 원소들도 여럿 있다. 그러면 이런 원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우선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수소 원자는 우주 초기, 우주의 나이가 1초일 때부터 대략 3분이 될 때까지 만들어졌다. 빅뱅 이론을 정립한 조지 가모 교수는 뜨거운 초기 우주에서 작은 입자들이 고속으로 만나 어떻게 수소와 헬륨 원자핵을 최초로 만들었는지를 밝혀내었다.

(나) 그러면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탄소, 질소, 산소는 태양과 같은 작은 별에서 만들어졌다. 우리 은하 내에는 태양과 같은 작은 별이 약 1,000억 개 존재하고, 보이는 우주 내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또 1,000억 개 이상 존재한다. 작은 별들은 뜨거운 중심부에서 수소를 연료로 핵융합 발전해 빛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헬륨이 만들어진다. 수소가 고갈되면 헬륨을 핵융합해 탄소를, 그리고 탄소를 이용해 산소 등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원소들 일부는 우주 공간에 퍼져 나가고, 일부는 수명을 다하는 별의 핵을 이루며 최후를 장식한다.

(다) 산소보다 더 무거운 황, 인, 마그네슘, 철 등은 태양보다 대략 열 배 이상 무거운 별에서 만들어졌다. 무거운 별들은 작은 별들보다 짧고 굵은 삶을 산다. 작은 별들이 100억 년 가까이 살 수 있는 것에 비해 큰 별들은 1,000만 년 정도로 짧게 살지만, 워낙 내부가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도 연료로 쓸 수 있고, 그래서 훨씬 다양한 핵융합을 통해 다양한 무거운 원소들을 만든다. 철을 만든 후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 폭발을 한다.

큰 별이 초신성 폭발과 함께 일생을 마감할 때, 일부 물질은 폭발의 잔해인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안에 갇히지만 대부분은 우주 공간으로 환원된다. 만일 초신성이 자기가 만든 귀한 원소들을 우주에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후에 태어난 젊은 별은 초기 우주가 만든 수소와 헬륨 등 극히 단순한 원소 외에는 갖지 못한 채 태어날 것이다.

태양도 예외가 아니다. 초신성이 원소들을 우주에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태양계에선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다.

(라) 결국 우리 몸속의 원소 가운데 수소는 초기 우주가, 그 외 다른 원소들은 모두 작고 큰 별들이 제공했다. 특히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대부분 태양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약 46억 년 전 어느 날, 이 근처에서 살다가 초신성 폭발과 함께 생을 마감한 이름 모를 어느 거대한 별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70억 지구 인구는 모두 한 별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두고 우리는 모두 한 우주 안에서 태어난 형제라고 우기는 것과 다르냐고 누군가 따진다면 달리 변명할 도리는 없지만, 그래도 신기하지 않은가. 우리 몸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마) 우리 사회에도 종종 초신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땀 흘려 이룩한 재화, 기술, 지식, 능력 등을 아낌 없이 사회와 나누는 그런 사람들은 나눔으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도 한다. 자연의 섭리가 인간 사회와 닮은 예 가운데 하나이다. <중략> 초신성에서 출발해서 그런가? 초신성이 그저 폭발만 한다면 엄청난 충격을 일으켜 주변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하지만 초신성은 그 폭발을 통해 중요한 원소들을 우주에 환원함으로써 오히려 우주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 아닌가. 당신은 초신성처럼 살고 싶은가?

서울여자고등학교 (서울)

4. 밑글의 내용 전개 방식이 아닌 것은?

- ①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독자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② 어떤 이론이 다양하게 나누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③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화제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④ 자연 현상으로부터 삶의 교훈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글쓴이와 학생의 대화를 직접 인용하고 있다.

서울여자고등학교 (서울)

5. 밑글을 읽고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은?

- ①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핵융합 과정은 왜 일어날까?
- ②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 ③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왜 큰 별에서 만들어질까?
- ④ 초신성 폭발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 ⑤ 수소와 헬륨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서울여자고등학교 (서울)

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우주가 생성될 때 대부분의 원소도 같이 만들어졌다.
- ② 우리 몸의 탄소는 태양과 같은 작은 별에서 만들어졌다.
- ③ 우리 몸의 철은 태양보다 무거운 별이 제공한 것이다.
- ④ 초신성은 폭발을 통해 중요한 원소들을 우주에 환원했다.
- ⑤ 우리 사회에는 초신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여자고등학교 (서울)

7. 윗글이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초신성의 특성에 기초해 제시하고 있다고 할 때, <보기>의 (가)에 들어갈 내용을 30자 내외로 쓰시오.

<보기>	
초신성 [자연]	(가)
바람직한 삶 [인간]	자신이 이룬 재화, 기술, 지식, 능력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움.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큰 별이 초신성 폭발과 함께 일생을 마감할 때, 일부 물질은 폭발의 잔해인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안에 갇히지만 대부분은 우주 공간으로 환원된다. 만일 초신성이 자기가 만든 귀한 원소들을 우주에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후에 태어난 젊은 별은 초기 우주가 만든 수소와 헬륨 등 극히 단순한 원소 외에는 갖지 못한 채 태어날 것이다.

태양도 예외가 아니다. 초신성이 원소들을 우주에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태양계에선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다. 우주 전체로 보면 무기물 우주가 된다. 우주가 시작하고 팽창하고, 별과 행성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탄생하고....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우주엔 이렇게 무기물 외에는 다른 어떤 숨 쉬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생명이 없는 우주가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 몸속의 원소 가운데 수소는 초기 우주가, 그 외 다른 원소들은 모두 작고 큰 별들이 제공했다. 특히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대부분 태양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약 46억 년 전 어느 날, 이 근처에서 살다가 초신성 폭발과 함께 생을 마감한 이름 모를 어느 거대한 별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70억 지구 인구는 모두 한 별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두고 우리는 모두 한 우주 안에서 태어난 형제라고 우기는 것과 다르냐고 누군가 따진다면 달리 변명할 도리는 없지만, 그래도 신기하지 않은가. 우리 몸의 구성요소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이쯤 설명하고 나서, 학생에게 다시 묻는다. “학생의 본은 어디입니까?” 지혜로운 우리 학생, 곧 수줍게 답한다. “초신성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종종 초신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땀 흘려 이룩한 재화, 기술, 지식, 능력 등을 아낌없이 사회와 나누는 그런 사람들은 나눔으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도 한다. 자연의 섭리가 인간 사회와 닮은 예 가운데 하나이다.

호평고등학교 (경기)

8. ㉠의 예로 적절하기 않은 것은?

- ① 효과적인 투자와 운영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켜 경영권을 2세에게 물려 준 ○○기업 창업주
- ② 저소득층 환자 치료비 1억원을 ○○대학병원에 전달하며 19년간 후원을 이어온 ○○주식회사 대표
- ③ 사회복지시설 건물과 담 외벽 등에 거리 벽화 봉사활동을 한 ○○대학교 시각디자인과 학생들
- ④ 문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프로젝트를 기획한 ○○문화예술위원회 회원들
- ⑤ 가난과 전쟁, 기후변화 등으로 고통 받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를 위해 후원금을 모아 보낸 ○○학교 1학년 학생들

호평고등학교 (경기)

9.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② 가설을 설정하여 핵심 개념의 성격 변화를 도출해 내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되는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동일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⑤ 대상을 유사한 다른 대상에 기초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학생은 박씨이군요. 그럼 본은 어디입니까?” “본은 ○○입니다.” “본이 어디라고요?” “○○입니다.” “본이 어디입니까?” 내가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자 학생이 어리둥절해 한다.

(나) 사람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황, 그리고 인이다. 원자 개수로 치면 수소가 전체의 63퍼센트를 차지하고 질량으로 치면 산소가 전체의 26퍼센트를 차지하는 으뜸 원소이다. 철, 마그네슘, 나트륨과 같이 적은 양이지만 꼭 필요한 원소들도 여럿 있다. 그러면 이런 원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우선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수소 원자는 우주 초기, 우주의 나이가 1초일 때부터 대략 3분이 될 때까지 만들어졌다. 빅뱅 이론을 정립한 조지 가모 교수는 뜨거운 초기 우주에서 작은 입자들이 고속으로 만나 어떻게 수소와 헬륨 원자핵을 최초로 만들었는지를 밝혀내었다. 우리 몸의 핵심 요소이자 기구를 띄우기 위해 종종 집어넣는 기체이고, 미래 자동차 연료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우주 전체 물질 질량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수소는 우주 초기 처음 3분간 만들어져 온 우주에 고루 뿌려진 후 오늘날 우리 몸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현대 우주론에서는 이해한다.

(다) 산소보다 더 무거운 황, 인, 마그네슘, 철 등은 태양보다 대략 열 배 이상 무거운 별에서 만들어졌다. 무거운 별들은 작은 별들보다 짧고 굵은 삶을 산다. 작은 별들이 100억 년 가까이 살 수 있는 것에 비해 큰 별들은 1,000만 년 정도로 짧게 살지만, 워낙 내부가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도 연료로 쓸 수 있고, 그래서 훨씬 다양한 핵융합을 통해 다양한 무거운 원소들을 만든다. 철을 만든 후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 폭발을 한다.

(라) 큰 별이 초신성 폭발과 함께 일생을 마감할 때, 일부 물질은 폭발의 잔해인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안에 갇히지만 대부분은 우주 공간으로 환원된다. 만일 초신성이 자기가 만든 귀한 원소들을 우주에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후에 태어난 젊은 별은 초기 우주가 만든 수소와 헬륨 등 극히 단순한 원소 외에는 갖지 못한 채 태어날 것이다.

태양도 예외가 아니다. 초신성이 원소들을 우주에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태양계에선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다. 우주 전체로 보면 무기물 우주가 된다. 우주가 시작하고 팽창하고, 별과 행성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탄생하고....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우주엔 이렇게 무기물 외에는 다른 어떤 숨 쉬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생명이 없는 우주가 되는 것이다.

(마) 결국 우리 몸속의 원소 가운데 수소는 초기 우주가, 그 외 다른 원소들은 모두 작고 큰 별들이 제공했다. 특히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대부분 태양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약 46억 년 전 어느 날, 이 근처에서 살다가 초신성 폭발과 함께 생을 마감한 이름 모를 어느 거대한 별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70억 지구 인구는 모두 한 별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두고 우리는 모두 한 우주 안에서 태어난 형제라고 우기는 것과 다르냐고 누군가 따진다면 달리 변명할 도리는 없지만, 그래도 신기하지 않은가. 우리 몸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이쯤 설명하고 나서, 학생에게 다시 묻는다. “학생의 본은 어디입니까?” 지혜로운 우리 학생, 곧 수줍게 답한다. ○“초신성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종종 ○초신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땀 흘려 이룩한 재화, 기술, 지식, 능력 등을 아낌없이 사회와 나누는 그런 사람들은 나눔으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도 한다. 자연의 섭리가 인간 사회와 닮은 예 가운데 하나이다.

(바) 언젠가 우리 대학교에 강사로 오신 한 연사께서 강연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셨다고 한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평생 5,000명의 노동에 기대어 살 가능성이 큼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오히려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 가능성이 크지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우리도 꼭 초신성 같구나!’하고 생각했다. 초신성에서 출발해서 그런가? 초신성이 그저 폭발만 한다면 엄청난 충격을 일으켜 주변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하지만 초신성은 그 폭발을 통해 중요한 원소들을 우주에 환원함으로써 오히려 우주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 아닌가, 당신은 초신성처럼 살고 싶은가?

김해문성고등학교 (경남)

10.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은 학생이 글쓴이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대답이다.
- ② 독자에게 질문을 던져 내용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 ③ 대화를 통해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의도가 일반적인 관점이 아님을 암시한다.
- ④ 초신성 폭발의 역할을 설명하고, 인간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를 유추한다.
- ⑤ 초기 우주와 작은 별들이 제공한 원소로도 우주 공간에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

1-(1)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①③ 2.① 3.④ 4.② 5.(1)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요청을 전달하였다. 부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상대를 비난하듯이 말하고 있다. (2)상황과 대상에 맞는 언어 예절을 지키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 6.④ 7.④ 8.② 9.④ 10.③ 11.② 12.② 13.④ 14.① 15.⑤ 16.④ 17.③ 18.(다)에서 화자의 '배고프지 않아? 여기 떡볶이 엄청 맛있대'라는 메시지는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의 배고픈 상태를 묻고 이 가게의 떡볶이가 맛있다는 정보를 전달하지만, 이면적으로는 함께 떡볶이를 먹고 가지 않겠냐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①화자의 이런 이면적 의도를 ②청자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③청자는 개인적 성향에 따라 말하기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려해서 말했어야 한다. 19.① 20.② 21.④ 22.① 23.⑤ 24.① 25.③ 26.③ 27.② 28.㉠은 준언어적 표현이고, ㉡은 비언어적 표현이다. 29.④ 30.③ 31.㉢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32.⑤ 33.④ 34.③ 35.① 36.② 37.③ 38.④ 39.⑤

1-(2) 영혼이의 역사 누리방

1.③ 2.④ 3.첫째, 선생님께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둘째, 특정 세대에서만 쓰는 말을 사용하여 선생님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4.⑤ 5.②6.① 7.소통 8.③ 9.② 10.① 11.③ 12.⑤ 13.② 14.① 15.③ 16.(1)청기와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조직하였다. (2)자신이 찾은 것이 조선 시대 청기와라고 생각하고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3)청기와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 깨달음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17.④ 18.⑤ 19.① 20.② 21.⑤ 22.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히 조사한 다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23.③ 24.⑤ 25.③ 26.⑤ 27.② 28.⑤ 29.④ 30.① 31.① 32.③

2-(1)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

1.① 2.② 3.② 4.(1)글쓴이가 등나무에서 얻은 감응 (2)건축물과 자연 사이의 감응 5.① 6.③ 7.④ 8.⑤ 9.㉠군수가 주민들에게 얻은 감응이다. ㉡작가가 등나무 순에서 얻은 감응이다. 10.⑤ 11.③ 12.③ 13.② 14.④ 15.① 16.② 17.① 18.② 19.② 20.① 21.④ 22.⑤ 23.② 24.① 25.③ 26.④ 27.③ 28.⑤ 29.㉢는 자연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필자의 건축관은 자연이 주인

이 되는 것이다. 30.③ 31.① 32.④ 33.⑤ 34.⑤ 35.④ 36.④ 37.① 38.② 39.④ 40.⑤

2-(2) 허생전

1.① 2.④ 3.④ 4.㉠돈은 도를 살찌울 수 없다. ㉡돈은 정신을 괴롭힌다.5.④ 6.④ 7.② 8.③ 9.⑤ 10.④ 11.③ 12.④ 13.① 14.① 15.③ 16.④ 17.④ 18.② 19.② 20.지배 계층이 북벌론을 주장했지만 그저 말뿐이며 주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21.② 22.③ 23.① 24.④ 25.③ 26.① 27.④ 28.㉢예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 물건이 없다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사대부와 같은 예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 29.⑤ 30.⑤ 31.① 32.④ 33.② 34.④ 35.⑤ 36.④ 37.④ 38.명나라 후손들을 후대해야 한다. 청나라와 교류를 해야 한다. 39.③ 40.② 41.④ 42.② 43.④ 44.㉢유통 45.㉣교류 46.④ 47.① 48.① 49.③ 50.적극적으로 인재를 등용해라. 명나라 후손들을 후대해라. 청나라와 교류해라. 51.지배 계층이 북벌론을 주장했지만 그저 말뿐이며 주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의지가 없었다.

2-(3) 초신성의 후에

1.④ 2.② 3.③ 4.② 5.① 6.① 7.자신이 만든 원소들을 우주에 환원하여 수많은 생명이 만들어지도록 하였다. 8.① 9.⑤ 10.⑤ 11.④ 12.초신성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룩한 재화, 기술, 지식, 능력 등을 아낌없이 사회와 나누는 사람들이다. 13.④ 14.③ 15.③ 16.(1) 초신성이-것이다. (2)땀-한다. 17.① 18.④ 19.⑤ 20.③ 21.⑤ 22.② 23.⑤ 24.③ 25.④ 26.① 27.④ 28.⑤ 29.⑤ 30.④ 31.③ 32.원소들의 기원

3-(1) 올바른 발음과 표기

1.① 2.① 3.⑤ 4.③ 5.③ 6.③ 7.신고[신포], 선릉역[설릉역], 갔는데[간는데], 잘못[잘몰], 늦게[늦께], 도착했다[도차퀵따] 8. ⑤ 9.① 10.④ 11.② 12.㉠ [달근] ㉡ [다가페] 13.② 14.③ 15.③ 16.④ 17.㉡ 18.② 19.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20.③ 21.③ 22. ② 23. ④ 24. ⑤ 25.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음절의 끝소리 ㄷ, ㅌ이 형식 형태소 'ㅣ'나 반모음 'ㅇ'를 만나 구개음인 'ㅌ', '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26.③ 27.④ 28.⑤ 29.⑤ 30.(1) 타라, 모음 탈락 (2) 입학, 거센소리되기 31. (1) [침:낙] (2) 유음인 'ㄹ'이

⑤ ~무주 군수가 “식사를 마치고 우리 같이 공설 운동장에 갑시다.”라고 제안했다.~ 등을 통해 알 수 있음.

▶어머, 이걸 외워야 해!◀

1.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 (★★★)

- ㄱ. 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 ㄴ. 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 ㄷ. 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일반 의문문)

B: 20살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

나이가 몇인가 →(문답법)

내 나이 이제 40

잠시 나를 돌아보자

똑같은 의문형 어미(-가)로 끝난 똑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기교로 사용될 수 있다. 물음에 대해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면 '일반 의문문, 내가 대답하면 '문답법'이며 '설의법'은 형식만 의문문이지 실제로는 평서문의 강조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을 기대하지도 또한 답이 나올 필요도 없다.

2. 사례 vs 예시 (★)

ㄱ. 사례(실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과거의 일)

ㄴ. 예시: 예를 들어 보임.

사례와 예시를 구별하지 않고 쓰기도 하나 이를 정확히 구별해서 쓰는 문체가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기에 꼭 구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3. 인용의 종류 (★★)

ㄱ. 직접 인용: 남이 한 말을 그대로 옮김
(큰 따옴표 있으면 직접 인용)

ㄴ. 간접 인용: 남이 한 말을 화자의 말과 문맥 안으로 옮김

-엄마가 “오늘은 집 밖에 나가지 마!”라고 했어.(직접 인용)

-최근 한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희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간접 인용)

지문에서 인용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먼저 큰 따옴표에 집중! 다음에, ~(라)고, ~다고, ~다는, ~라는 등의 말에 집중하자

2.②

▶'시간을 다루는 일'이라고 한 것은 건축물을 조성할 때에

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에 축적된 것과 미래에 일어날 변화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3.②

▶현대 건축이 자연을 부수적인 측면에서 인공적으로 다루려했던 점이 ㉠와 관련되고 글쓴이의 자연과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건축관이 ㉡와 관련됨

5.①

▶①은 수필의 특징에 해당

② 희곡에 해당 ③ 중수필의 특징으로 윗글은 경수필임

④ 중심 소재에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체험을 기록한 것이 지 객관적인 거리를 둔 것이 아님 ⑤ 문학은 비유적 표현을 지양하지 않으며 정보를 충실히 표현하는 글은 설명문에 해당

▶어머, 이걸 외워야 해!◀

수필에 대해 알아보자 (★)

1)개념: 자신의 체험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쓴 글.

2)특성:

-무형식의 형식 -비전문적인 글 -개성의 문학

-고백의 문학-소재의 다양성

-1인칭의 문학(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드러냄)

3)종류

ㄱ. 경수필: 편지, 기행문, 일기, 수기 등

ㄴ. 중수필: 칼럼, 평론 등

6.③

① 현대 건축의 문제점을 주관적으로 분석했으며 해결책은 없음

② 통념에 대한 반박은 없음 ④ 건축물과 자연 사이의 감응이 아니라, 군수가 주민들에게 얻은 감응과 내가 등나무 순에서 얻은 감응임 ⑤ 자연과 건축의 조화임을 강조함

▶어머, 이걸 외워야 해!◀

통념(★):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

7.④

▶군수가 주민들에게 얻은 감응과 내가 등나무 순에게서 얻은 감응이 겹으로 작동해 훌륭한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었음

① '건축이 - 설사 도심에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 '자연'이라는 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통해 알 수 있음.

② '현대 건축은 자연을 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고 조경이라고 하는 부수적인 측면에서 인공적으로 다루려고 했다. 즉,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건축이 마치 자연 위에 군림하는 듯했다.' 통해 알 수 있음.

③ '자연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간을 온전히 표현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지니고 있다. 자연은 그 자체가 변화이자 축적이며 지속이고 자라나는 것이다.' 통해 알 수 있음.

⑤ '방문객들은 등나무 운동장의 커다란 규모와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어 감동한다.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자연의 힘이 크게 작동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제된 건축의 힘도 작